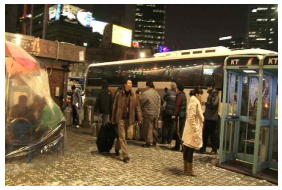
주소야 다 살아있는데, 저번달까지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소가 없어가지고

왔다갔다.
역전에.. 따스한데 앉아 있다가
눈치보이면.. 지하도에 있다가
짐은 다른데 나두고..

024-
스톱.. 갔다 와야해요
또 해요
또 와야 해요
몇 명? 보통 세통이면은 백80잔정도 통에 담는 분 빼면
120-150잔 정도 나올거에요
커피 타러 가는 중

025-
연하게 타죠
왜요?
여기 추운데 고생하시고 속이 안 좋으니까
식사도 거른 분도 있고 일부러 연하게 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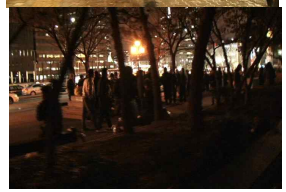
026-
빵하고 드려요
거기 아까 계신 분들
꽃동네 모시고 가는 겁니다.

027-
(커피타는 방법)
원래는 대충 넣는데, 촬영하니까..
설탕을 넣고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어느정도 감이 있어요
나머지 모자란 거는 더 넣고
첫달 이에요 커피는 어릴때부터 먹어서
하루에 있는대로 먹거든요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하도 같이 하자고 해서
다들 고마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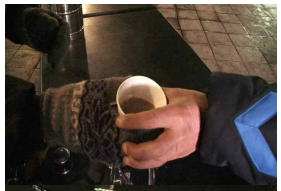
굉장히 좋아하세요 추울 때
커피드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야에 물통 나를 때
또 가야죠



028-
타는 담당, 나르는 담당
용산쪽에 있었는데, 철거되서 나왔거든요
용산역에 가 잘때도 있고
용산역 주변이 철거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 앞쪽으로 싹 다 헐린다고
거기도 싹 다 나가는 거에요
일차로 길 건너편 구민회관쪽 헐리고요
2차로 여자분들 계신곳.. 헐린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하고 있어요
저희같이 젊은 사람은 날씨 풀리면 일을 하니까
겨울에 일 없을 때 이거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문제죠
술 드신 분
술을 너무 드시니까 일을 안 시킨거지
자활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인정이 안 되죠

이게 꽃동네에서 온 빵하고
중복이 되면..
이분들이 평일날은 저녁을 드실때가 없어요
다른데 잘 찾아가질 않으세요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오면
우르르 몰리시죠
그러니까 역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단체도 서울역을 제일 먼저 오시잖아요
(구세군 종소리)



20081223a-036

20081223a-051,052
집에 가는 줄과 꽃동네 가는 버스 대비

35. # 연말 새해 인터뷰 20081229

-001
다시서기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허허허
올해 다시서기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래요
됐어요 ?

20081229-003
저는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
서재익 선생님처럼
항상 웃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는데,
고마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열 번 힘들어도 한 번 고맙다는 말에도 행복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거에요
결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 하는 일이 아저씨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파이팅입니다.

20081229-006
다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파이팅

우선 선생님들, 몸 아프셔서 병원 가면 고분 고분 진료 잘 받고 진료 거부하지 못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무 사고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1229-010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 많은 사건들 있고 한데, 마음들 더따뜻했은 좋겠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아저씨들을 위해서 했으며 좋겠습니다.

원동력이라 하면, 스스로 욕심도 있고
또 왔다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아저씨들도 있고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챙겨 받는 것도 있고
마음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일단 거리사람들도 그렇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0081229-012

다시서기 정문형입니다.
2008년도 한 해가 다 가네요
또 다른 2009년이 오는데
감히 당부드리고 싶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건강이고요
자기 자신을 관리 잘 하고
두 번째로 상담하면서 어려운 점이
뜨뜻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점
힘들지만, 좀 더 공부하고
그런 방면으로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화목하고 뜻있는 ..
건강한 보람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1229-013
선생님 추운데 하고 다니라고
그런데 이걸 직접 짜가지고 줬어요

안 둘렀더니 왜 내가 짜준거 안 둘르냐고 해서
직접 갖고 와서 이거 두르고 했습니다.

36. 20090106-018

예, 급식 표 나눠주고 왔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배포된 순서대로 아저씨들 식사하라고
현재 160명 들어왔고요
앞으로 40분 더 들어올 것입니다.

급식을 200명 기준으로
못 드시는 경우는 좀 안타깝죠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셔서
인원수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급식이 끝났습니다.
200분 드시고 여섯 번 더 십시일반으로
가끔가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일자리 일용직을 나가면 식사를 하시는데,
일이 없는 날 같은 경우
돈도 없고,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급식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는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20090106-022
오늘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배식이..

기분 좋죠
간혹가다 늦게 오시면
가슴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로 잡아서 해도
더 드시라고
계속 오시네
뜨겁습니다.
선생님 밥이없어요

국은 요
김치..

026-땀흘리는 봉사자 모습

37. # 식당자원봉사자

"노숙하시는 분을 보면 식사는 하셨을까?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20090106 - Clip 041.avi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류선미씨

처음 올 때 무서운 마음이 있었죠. 속직히 말하면,
첫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노숙인이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잡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나뵐 수록 더 재미있어 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뚝뚝 하던 분들이 자주 뵈니까 인사도 하시고

습관이라기 보다는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노숙인 아저씨들 여기 말고도 만찮아요 역마다 계시고
보면은 가다가 한 번 돌아보고 ..
아 식사는 하셨을까 습관이 생긴것 같아요

노숙인을 설명하자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옆집에 계시는 아저씨 같고, 뒷집사시는 오빠 같고
연령층이 많은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7살 오빠부터 할아버지까지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안경을 안 끼고 보면은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인 거에요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보지 않고
우리도 힘들면 쉬잖아요 그렇게 봐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요 한분 한 분 마주치고 인사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자원봉사를 소개한다면 ?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인맥으로
마음만 먹으면 많이 하면

여섯기간, 두시간 세시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을 도와 드려야 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더 오히려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042-
저는 일을 하게 될 거에요 아마,
만약에 평일에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데,
평일에는 없어요
저 혼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을 시작하면 주말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저를 위해서

* 류선미씨에 대한 실무자의 설명이 필요
어느기간동안 매주 월요일 급식 자원봉사를 , 식사배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090107-002
인터넷을 보고요
대학생 자원봉사 사이트 보고

많으시더라고요
시작전 ..
처음 해보는 거라
열심히..

열 번 정도 되었어요
수요일날 오고,
월말의 토요일날 옵니다.

004-
처음하는 거에요?
아니요
맨날 설거지만 했어요
두 번째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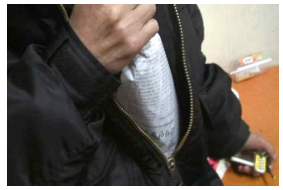
이건 보존식이에요
보존식은 오늘 나가는 식단의 메뉴를 그대로 담았다가
냉동보관을 하는 거에요
72시간 3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급식소마다
안하면 벌금이 상당히 큽니다.
보존식 냉동고까지 지급을 받았어요
자 식사들 하세요

005-
저 매일 와요
저 학생인데요 방학했잖아요
전 꿈이 사회복지사라 1000시간 채울려고요
대학갈 때 좋지 않을까요 ?

20090109a - Clip 058.avi
제일 크게 느낀 거는요 여기가 노숙자센터잖아요
노숙인이라고 그 전에 알기에는
집없고,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인줄 알았거든요
숙박 여기서 하시고요, 낮에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지하철 역이나 길거리에 계신 노숙자분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배식을 하면서 그 분들 눈을 보잖아요
똑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 전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느데,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38. 20090111-001

추우면 밤에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롯데 주차장 같은데,
사우나에서 일 도와주고
사무실엔 오랜만에 온 거죠
이건 뭐에요.. 유담포
물따뜻한 물이죠
교도소에서는 이걸 유담포라고 하는데,



따뜻하죠

이자 이불속에 너놓고 자면 따뜻하죠

빈병에 담아서
11시에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네 다섯분이 양쪽 가방에 들고 하나씩 나눠줍니다.

저같은 경우 세 개정도 얻어 놨어요

오늘 쪽방 안 들어가시는 거에요
주차장 있는데 하나 남아서
방을 만들어 놨어요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주소지가 있는데, 일년전부터..
사고쳐서 4년정도 있다 나왔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동의 직원들한테, 수급자활 만들어주고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집은 영구임대 주택 1월에 준다니까 신청한번 해야죠
겨울철 다 지나고 집을 주면 뭐합니까
1월달엔 신청해서
애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느니까
초등학생인데, 뇌경색 맞아서 누워있고
일이 없으니까
300~350명 나가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가
대우, 금호건설 야간작업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노는 사람들도 많고

002-
일주일에 4일정도 일할 수 있어요
인력사무소 사무실 소장이 2~3일은 대마 맞을 생각하라고
번갈아 가면서 보내는

쪽방은 여기서 작년에 들어가보고 안들어가서 모르죠

일주일, 3일짜리..

일하는 것도 있고
노는 것 보다 일 하는 것이 더 좋죠
일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있어야 하고

애들하고 있다 보면
서울역 나올라고 하겠습니까

행신3동 살아요
가라뫼에서 내려서 농협있고, 골목 들어가다보면

방 2칸 응접실 하나..
나까지 얹혀가서 있으면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나왔어요

노숙을 해도 자기가 알뜰하게 돈 있으면 사우나가서 씻고 맘 잡고 술안먹고 담배 안 피고
술이 원인제공인데, 열심히 살라고 하면
고시원 , 쪽방 얻어서 살 수가 있는데,
타락하면 지하도, 아무데서나
박스하나 깔고, 이불하나 침낭하나 있으면
이렇게 살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마음은 모르니까 우리가
저같은 경우 빨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면
정신차려서 돈좀 모아야 겠다..

돈을 보내주진 못해요
삼육재활원에 있는
이번에 15만원 해주면서 다녀오라고
일산 서구청 탄현마을
주유소 있고, 이리 들어가면
가정집들이 있고
고양열린청소년이라고 있어요
큰 딸이 거기 있어요

004-
김상옥
다시서기에서 주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불하나 주면 되요

박스에 깔고 주무시라고
김상옥씨..

005-
롯데마트 박스는 많은데,
얼굴 시커머면 안줘요
한번가고 두 번 가고 버릇이 되어서
옷이야 깨끗하면 맘대로 가져가는데,
옷이 더러우면

008
배포를 하는데 차타고 같이 가실래요?
충정로 지하도는 안되고
지하는 간수를 못해
없어져 버려
간수를 못한다니까
한 분은 여기 계시고
갔다 주는데, 이름을 알아야 해요
이름이라도 남겨야해
매직을 가져가고
가장 좋은 건 침낭에 이름을 써 줘야
가짜로 말하니까 골치아파
가짜라도 이름을 써 놔야 안 잊어 버리거든

브라운 스톤 옆에 차를 두고
이름 물어볼테니까 하나씩 적어

011
침낭 있어요?
침낭 없다고 ?
침낭에 이름 써줄게
선생님 성항이 어떻게 돼요?
박성철 선생님

012-
침낭..
이름 몰라요?
이재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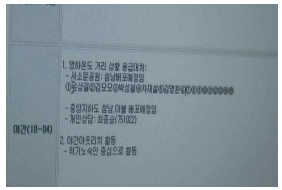
계세요?
없네
신발은 있는데
후랏쉬좀 줘봐

014-
여기 없어요?
자요?
침낭있어?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명근 선생님
침낭에 이름 적을 테니까 잊어 버리지 말고
잊어 버리면 물을 뿌려 버려
이불 속에 침낭 넣고 쏙 들어가 버려
콱 집도 똑바로 안 짓고
뭐야 이거
나오지마..
잘 자요

016
침낭 있어요?
누구요?
강성복선생님 ?
이름 써줘
작년보다 침낭이 안 좋아요
그래도 어쩔수 없어요
쉬세요

018-
이쪽을 중심으로 폐자원 일하는 분도 있는데,

019
객관적으로는 노숙을 하는데, 노숙을 하게끔 지원을 하는 역할 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 그런게 쉽지 않습니다.



020
주무세요
여기 여기
나무사이로 헤쳐 가서
침낭 있어요?
다시서기

022-023
빌딩밑 노숙인 틸다운

026-
또 거기 갔네
고물 주우니까 거기갔네

39. #20090121 노숙을 처음할 때 이야기 자전거 자활팀.

001-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술 먹고 그래
너 나 알어 빨 리가
혼자서 가면서 막 욕하면서 가는거야
역삼동에서 노숙할 때
부자동네도 노숙자가 꽤 있어요
갈데 없어 앉아 있는데,
노숙자가 '야, 돈 있냐? 물어보길래
돈을 주곤 했어요
그냥 받아서 그냥 가면 다행인데, 에이 씨발 욕을 하고 가면 난리 난 거지
남산이 텃세가 쎄요
남산이 춥고 여름엔 시원하죠. 모기가 많아서 그렇지

비닐 덮고 자는데 거기도 뚫더라니까
일 갈려고 일찍이 나갔다가 오갈데 없으면 남산에 가서 자거든
그때까지 모기가 있다니까
처음엔 어떻게 가는줄 몰라가지고
아는 형이랑 남산에 올라가지고 담배 피고 있으니까

아저씨 아줌마가 오더니..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오천원 주고 가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어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돈을 주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서 그런지
삼성동의 벤치에 아줌마가 지나가더니.
나. 방 있는데요. 돈을 이만원 주고
교회다니는 아줌마들이 돈을 잘 줘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반포대교에서 노숙했거든요
어디서 밥 주는지 모르고 재워주는지 모르니까
십일동안 굶었어요
역삼동에 먹을 게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손이 가는데, 차마 못 먹겠더라고
배고프면 화장실 가서 물로 배 채우고
반포대교 가서 자고
할머니가 오천원짜리 주면서 밥을 먹고 당겨라 주고 가더라고요
그다음날 또 갔어요
할머니가 갈데는 있냐 ? 만원짜리 주면서
이리 가라 해서 다시서기 왔어요
할머니가 유기견을 키우세요
작년에 사료 사십키로짜리 사서 갔다드리고
스님 왜 돈을 버는데 돈을 주냐니가 그냥 가져가래
가락시장에 밥 주는데가 있어요
나는 가락시장 가면 아는 놈들이 많아서
술 먹지마 그러면 안 먹어

013-
백구십팔명 식사하러 왔습니다.
아쉽지만, 이백명을 마무리 지어야 겠네요
표?
두장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에요
표 받으셨으니까
표 나눠준 선생님이 나눠줄 적에 줄 서있었어요
그 전에 바깥에 나갔다가
점심을 잘 안먹어서 컵라면 사서 먹었어요

020-

저희 회사에서 자원봉사 취지로 직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밥 배식에 실패하면 죽는다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름엔 땀 많이 흘렸고.. 땀 흘리고 나면 보
람도 있고 기쁘죠
안타까우면서 많이 못 드려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동아건설 분양 마케팅팀

40. # 식당자원봉사자 - 신동아건설

20090121a - Clip 026.avi
일단은 편견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고
전에는 안 그렇지만,
현재는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어려운 분도 많은데
모두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오셨나요?

일년정도 되었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다들 노숙인 하면 꺼려 하는 부분이 많고
더럽다,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와서 시설을 확인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실려고
몸도 잘 닦으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주변에서 냄새 나는 거 찾아볼 수 없고요
좀 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예전의 활기찼던 모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동아건설 분양팀 강항규대리

41. # 20090125

002-

003-
그 여자분? 3층에 누워있는 여자분
아니요. 중지
중지가 모예요
몽골
그럼 어디에 계세요
중앙 지하차도

004-
냄새가 나요. 그럴때는
들어달라는건지. 시비걸라는건지

008-
그냥 우리가 토요팀은 아니예요
우리는 이런 모임이
학교에 가면 동호회 같은거 많잖아요
저는 이런 동호회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와서 일만 하고 가는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에 나가면 인맥이라는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각자 행동하시는 범위들이 다 다르단말이에요
우리가 모일수 있는 시간이 이번 한번이지만
이번 한번이지만 일하고 봉사하시는 과정에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들 봉사활동을 하시러 오셨겠지만
중요한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우리가 일을 하고 나누어주고 자체가 별것 아니지만
식사하시는 아저씨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011-
하나
둘
셋
코봉이?? 파이팅

012-
쉬는 타임인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다 만들고 여기 뛰어다니고

우선은 저희가 외부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와서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친근감이 없고
그냥 몇 번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오시긴 하는데
솔직히 이분들 계속 어떤 분들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를 계속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걸 우리 센터에서 해주질 못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우리 센터에서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한 거죠.
앞으로 그 팀을 계속 늘려가서 나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다시서기 토요 봉사팀이 와서 봉사를 처음 다 조리부터 배식까지 다 완료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체개를 만들겠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센터는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가 다양 합니다
싸이월드 부터 시작해서, 브이엠에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가는 사회복지봉사인증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www.vms.or.kr이나 싸이월드 클럽명에 다시서기치면 센터나 저희 다시서기 센터나 노숙인 다시서기센터 타운을 보실 수 있었고 그 쪽에서 바로 봉사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격은 본인이 봉사하고나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나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
외국인 분들도 오셔서 매월 두 번씩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적 불문하고 저희가 다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본인이 나누고자 하는 희망과 손길들을 언제든지 오셔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9-
계속 미안하다고 기다리는데
9시에 김동윤?씨가 일이 끝나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또 길이 엇갈렸어
온수역에 왔다가 전화가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11시 40분 정도가 돼서 다시
차타고 남현동으로 간거에요 남현동으로 가서 직접 면접하고 하는 동안에
그 회사는 제가 확인했어요.
튼튼한 회사고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협력업체고 그 건물들 전파수신기 부착하고 세팅하는 회사에요
기술적인 것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품성자체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오기로 했는데 동윤 씨가 아직까지 안 오네.
피자집에서 붙잡고 있을 거예요. 사장이.
피자집에 오늘 종료한다고 이번 달까지 마감한다고 해서
어제는 이야기 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장에게 붙들려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을 때
사장이 자기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게정리를 해버린거야. 그래서 따른 사람이 사장이야.
그 사람이 영업이 잘 안되니깐, 시간제로 돌린 거야.
백오십 백이십 백삼십만 원 받기로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간제로 돌려서 계속 90만원 받고 일한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만원 줬데.

020-

어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다.
정말 아직까지 3D업종에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왜 그러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령 처음 출퇴근 훈련들이 안되는 부분. 이전에 출퇴근에 했는데 그걸 잊었잖아요.
초기자본이 필요하다. 백오십만 원 준다고 해서 처음 가서 방 얻고 밥사 먹고 하다 보면 거의 백만 원 정도 들어간 샘이죠. 그러면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한 습관들 훈련도 안 돼 있다 보니깐 소비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혼자 술을 마신다면 그 다음날 출근도 늦게 되고, 또 상체?에 약하게 되고 그 상황들에서 혼자서 정리를 못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끄럽게 다 이해는 못하셨지만
부분적 이해 하셨다.
아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새벽에 연결된 그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그래서 따로 방을 구해주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살고 아침에 헬스 가서 운동하고 똑같이 경로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피시방을 좋아하니깐 게임 좋아하니깐 밤새도록 게임하도록 내비둬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조직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거에요.
그분이 나름대로 이전에 크게 사업을 운영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몇 백억을 투자해서 거의 말아먹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돈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해서,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었다.
6시간 같이 있었나.

이틀주기로 했습니다. 출장시간 이틀주기로 했고요
2월 달 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이 오시기로 했고요
남현동 어제 저녁에 김복원 선생님 집에서 유자차를 얻어마셨거든요
사감역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복원선생님
임대주택이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벌이다
그런 충분한 이해 하셨고
유자차를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맛있는 차를 사주겠다

취업담당자 이야기 해야죠.
부드럽게 그쪽에 경리업무 행정업무 담당하는 사람하고 해서
그쪽에 구인 이직표를 내서 그것은 연결하야죠.
지금 이제 가까이 있으니깐 가능하죠.
예전에는 귀찮으니깐 먼저 해버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40명 정도 취업시켰으니깐,
이쪽에서는 그쪽한테 설명을 해야겠죠. 사장님한테.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사례관리 하는 부분들도 되고

021-

023-

030-
봉사점수도 필요하고
또 마침 찾았는데, 여기 홈페이지를 처음 봤는데
시간대가 좋아서.
필요한 손길이 많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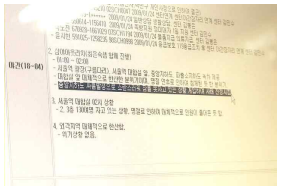
아니요.
아직 못 뵈었어요.
실제로는 못보고 티비로만 보고.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 드리실까.

032-
대부분 서울역에서
귀향객들이 늘어나니깐
한쪽으로 밀려나는 상태이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니깐
우울하거나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외소해져서 한쪽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행인들이 많다 보니깐 금전요청도 있고. 구걸.
돈이 조금씩 생기니깐 또 술을 많이 먹죠.
오늘 저녁에 술 많이 먹는 날입니다.
날씨도 추워서 걱정입니다.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급식 비슷한 시간에 하는데요.
점심급식 했을 거고요. 점심, 저녁을 계속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광장에서 아마 급식을 했을거에요.

033-



056-
봤을때요.
그냥 옆에 앉으니깐 냄새나고,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오늘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깐
예전에 보는 그런 시각과는 다르게
이제 경기가 어려운건 다 똑같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집을 잃고 노숙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거니깐
마음이 안됐고요.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 텐데
식사라도 따듯하게 하고 가셔서 기분좋은 것 같아요.

친구
친구가 온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오늘 조리 하고요. 배식 봉사 했어요. 배식봉사 아닙니다.
설거지 했습니다.
건너 건너 봤어요.
기회만 되면 하고 싶어요.

부산에서 온 김경진입니다.
부산에서 온거에요.
사실은 코이카 훈련 받으러 온건데
설연휴때는 고향을 가야하는데
티켓을 못 끊어서 친구가 한다 길래 따라왔어요.

058-
어. 근야 길에서요.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낯설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깐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무섭다거나
좀 겉모습을 봤을 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솔직히.

글쎄요.
지속적으로 보지 않은 이상
여전히 어색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면 낯선 느낌이 줄어들거나.
지속적인 이런 활동이 중요한가. 같아요.
일회성보다는.
부산에서온 코이카 훈련중인 최유선입니다.

06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2. # 20090129

001-
수리비 만 오천 원.
재활용 되는 거 치곤 이런 건 좀 깨끗한 거야.
이런 거는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002-
길거리에 많이 방치해 두니깐
자연으로
튜브이거 괜찮잖아 재활용해도 되고
힐 한번 잡아보고 이런 거는 못쓰고
핸들도 닦고 이런 건 재활용 이것들은 괜찮네.
이정도면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아.

004-

011-
귀성인지 귀향인지 모르겠어요.
귀성이 맞죠.

013-
형님 만났습니다.
우리 형님이요.
동교동 큰 형님 모시러 왔습니다.
귀성인지 귀향인지 아시기 때문에.
귀향하셨거든요.
노숙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그냥
이러저러 하시는 분인데 큰형님 뻘인데
광주 큰 형님 댁에 가셨다가 오시는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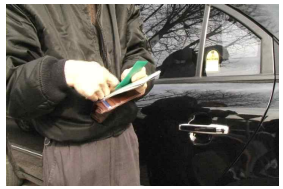
018-
어머니가 구르마 끌고
머더러 하냐
나 고물주었소

이 놈아 언제 정신 차릴래
나 딱 삼십사만칠천원가져왔어
어머니 이십만원드리고
작은아버지. 처음으로 작은아버지한테 갔당께
십 사년 몇 개월 만에
작은 엄마가 십만원 용돈주고

작은아버지 동생들은
십만원주고
우리막둥이가와서 돈 삼십만원주고
조카가 힘쓴다고 칠십만원주고
사십얼마 벌어가지고 왔어.

020-
아니 좋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니깐
나도 주고 오는데
세상에 그거를 십팔 찾는데
열이받아 안받아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있지
절대못주지 내가
오기로 꽂고 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지나가면은 마주치면 졸졸졸따라다녀

035-
자활통장하려고요.



* 노숙인분이 자활을 하고 받은 돈을 저금하려는
통장을 개설하는 모습을 보며 그 분의 삶에
희망의 밝은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생긴 것 같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와 자활 혹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시작하신 분의
모습을 담아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43. 20090216-011-

이름을요
서울역이요
돌아다녔어요
구세군 봉평 마을에
동그라미그려요?
사인을 잘 못해요
74년생. 7월 달. 7월2일.

016-
돈 모아서 간다고
아직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돈 모았으니깐 놀러가니깐 같이 가자
같이간다 해서
(민수샘하고) 많이 친했어요
나 여기 저
방 방 얻을 때
이것도 찍어보고 방에 와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하고

018-
이거 녹차해서 서울역 앞에
논의를 해봐야죠. 서재익 선생님하고
서재익 선생님은 바다보고 싶다고 했고
이영재 선생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청주
거긴 고향이잖아.
대구 글쎄 대구
거긴 볼 것도 없어
부산 거기 부산 갈 거야 나 부산 한 번도 안 가봤어
글쎄 부산
안 타봤어

녹차
녹차에 설탕타면
서울역에는 있습니다
뜨거우니깐 날씨가 차니깐
녹차를 타던 보리차를 타던 설탕은 타야합니다.

술 드시면 일단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죠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냐
왜 너희 사람차별하냐 안되는 건 안되는 건데

4개씩
4개씩 넣어요
야 나는 까러오시는줄 알았는데 불끄러 가시네

019-
아니 이걸 이렇게 까면 되지
가라 앉으면 뜨거워서 터지거든요
드실 때 마다 입에 걸리는게

3월 중순경에

020-
넣어야죠 지금
커피는 비싸서 많이 못 사고
그러니깐 녹차는 많이 있고
녹차를 타고 나가자니 뭔가 부족한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맛이 생각했던 것 보다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하고는 있어요.
민간인 자원봉사도 지난주에 같이했어요
일반인
군대용어가

021-
너무 달면 안 돼요 또.

027-
어디서 오셨어요
다시서기

20090217-001-
한번 더 맞추려고 노력하면 돼요
장구소리 우루루딱궁
단비 오시는 반가운 소리
덩따쿵따 덩따쿵따
덩따쿵따따 쿵따따 쿵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

누구는 빠르고
노래를 해야지
입보다 더 잘 맞는게 몸이에요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

다시한 번

장구소리 우루루딱궁
단비 오시는 반가운 소리
덩따쿵따 덩따쿵따
덩따쿵따따 쿵따따 쿵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따 쿵따

끝은 맞았네 잘 하셨어요

더엉 더엉 덩덩 딱딱
더엉 더엉 덩덩 딱딱
논다고 생각하세요 따를

더엉 더엉 덩덩 딱딱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딱딱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딱딱

보세요 크게
더더덩을 죽여주세요 시작

좋아요 한 번 더

더엉 더엉 덩덩 딱딱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딱딱

그다음에
손을 옆으로 벌리는 거하고 위로 벌리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 보세요

손을 위로 올려 버릇 해야 해요
옆으로 하지 말고 위로
방망이를 하늘로

이게 입장단의 효과에요

더엉 더엉 덩덩 딱딱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딱딱

20090217-008
우리 선생님들이
안하던 머리를 쓰시는데,
평생 책 한 권도 못 읽어 본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월화수 3일동안 책을 몇 권씩 읽느라 머리가 쥐났을 거에요
고민을 하다가
모이면서 풀기도 하고 학우들간에 단합심 같은 거 뭐가 좋을까
그러던 차에 풍물을 하게 되었어요
하시니까
네 번째인데, 좋아하시네요

내일 우리 선생님들이 졸업식을 하시는데,
졸업식날 수고하셨던 교수님과 학장님,
성원했던 여러분께 뭔가를 보여 드리겠다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올해도
몇일 안 있으면 3월초에 5기 신입생 선발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일년 과정으로 끝났는데,
이걸로 끝나기 뭐하다 해서
그 전졸업기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심화과정
특강 형식으로
풍물도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달 되었는데,
일주일에 두시간씩 네 번
그걸 가지고 공연은 무리인데,
한 번 해보겠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009
오늘까지 딱 두 번째 연습을 나왔습니다.
리듬을 타볼려고 노력중이죠
더 열심히 해봐야죠 될 때까지
일년을 참고 기다려 왔는데,
내일 졸업이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앞길을 잡을 수 있고 삶에 희망을 갖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볼려고요
이 배움이 나한테 의미가 깊은것 같습니다.

저야 항상 얘기를 하고
하고 싶다는 친구도 많고 배워보고 싶다고
나 같은 놈도 변했는데,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성질이 괴팍하고
하는 것 마다 짜증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만나면 웃고 안아주고 하다보니까
친근감 있게 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043-
굳어 있는 몸에 장단이 흐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음은 딱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문학 대학에서 별명이 조르바에요
몸에..
그리스인은 조르바고
한국의 노숙인 사르바
조르바에서 졸르바로 했다가
가락 한 번 듣고
싸이에 이름도 숫자로 437
* 조르바의 춤 노래를 사용할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빠지셨어요
선생님은 가락에 못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몸은 자유로운데
가락에 메이면 힘드니까

044
맨처음에 징징은 들어오느데, 지징 지징은 잘 안돼요
징징은 ...
안 맞는 거에요
거기서 안 맞으니까
저는 인생은 폼
운동은 폼이다..

운동하면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은 폼이 좋아야
자세가
폼이 인생은 폼이다.
자세가 중요한 거에요 사실은
폼이 나올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거 안 나오는 거에요
이거
옆에 다 들려요
그만큼
떠들어도

내가 징소리만 듣는 거야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적인 학습

045-
하루에 우럭을 낚으면
내 앞으로 떨어지는 거
선주한테

046-
피아노 앞 노숙인
파라도도시라솔파미레도레도

047-

44. 20090218-002

다행히 올해 따뜻해 져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인문학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삼성코닝정밀..

0127-
고맙습니다.
한동안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센타에는 밤을 지세면서
활동가들도 있고요
그곳에서 지내는 분도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웃리치 상담원중 한 분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직도 봄이 멀어졌다고 원망하는

이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겨울과 추위지만,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추위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졸업식, 수료식에 주인공으로 참석한 여러분은
꽤 오랫동안 인생의 겨울, 혹독한 현실이라는 추위와
인문학 공부를 하면
내인생에서 겨울이 지나가는 것일까 의심하기도
그렇지만, 겨울은 지나갑니다. 봄이옵니다.
중요한 것은 봄을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
움추린 상태로 맞이할 것인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할 것인가?

이 추운 겨울
뒤돌아보면
일년은 무척 짧은 시간
엊그제 입학식 같은데 일년이 지나갔죠
고민과 갈등도 있었지만,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르바.. 한타로 정리했던 선생님도 있고요
한동안 트라우마..이 말로 자신의 내면 상처 이런걸 되돌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성숙될 수 있을까
수많은 이야기 했던 기억
 연극, 영화, 고궁, 새로운 공부, 지식 지혜를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나는게 졸업여행을 잊을 수 없을
천진한..
그 기쁘고 즐거웠던 기간중에도 갈등과 번민이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중 몇 분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쳤다는 기쁨보다

더 큰 불안감 아쉬움 이런 것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감이
어느정도 안정된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런데,
용기를 내십시요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당장 한끼의 식사와 잠자리를 걱정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공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
새로운 고민. 선택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은

밥이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남들이 갖지않은 특별한 것
이 세상과 추위와 당당하게 맞서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왜 넘어졌는가
어떻게 그리고
주위를 둘러 보십시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동료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요
넘어졌을 때 털고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또 다른 발견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아픈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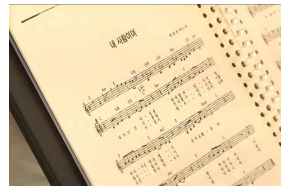
그리고 버스운전면허증을 따고서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줄 자랑할 수있었다고 이야기 했던
과거의 꿈 그걸 잃어 버렸는데
새롭게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이대근 선생님
이제는 자전거 수리의 전문가가 되어서 필리핀여행도 하고
그 속에서 따뜻한 정을 얻었던 김민수 선생님

여러분 모두가
남들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하고 정말 ㅅ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시작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갈 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다.

이 수료식은 앞으로 긍정적인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새롭게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요
여러분이 한 해동안 부지런히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희망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달려온 여러분
고맙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용기를 내셔서 먼길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030-
수료증
이름 문충섭
위의 사람은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함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024-
내 사람이여

내가 너의 외로움을 밝혀 줄 수 있다면
빛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길 마다
함께 나누며
너의 뒤를 비춰 주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 줄 수 있다면
이름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너 그리고 우리
너의 눈 속에 슬픈
눈물 흘리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가난 한 참 어려움을 모두 주고 싶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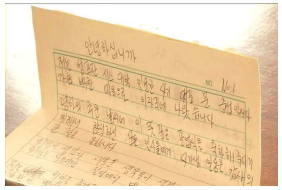
내가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너의 고운 한마디 새가 되어도 좋겠네

025-
내 가진 시를 들려주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토록

026-
지키고 싶네
내 사람이여
내 사람이여
눈물흘리며 서 있는
내 사람이여

027-
주옥같은 글들 읽어 보시면
마음에 깊은 감동을

029-
수료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불러드리겠습니다.



033-

먼저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프란시스대학을 수료한 4기 대표 문충섭입니다.
가슴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이 뜻 깊은 졸업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4기생 일동은 감사의 올립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가슴으로
저는 희망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물을 준 씨앗이라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내버려진 존재에서
너무나
좌절, 분노 하였고

존재감 자체에

우리모두는 문학 역사 철학
글쓰기와 특강을 통해
주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마음과 영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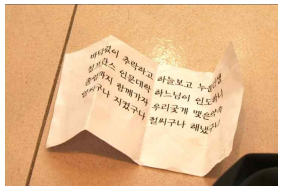
꽃이 피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자체게 반신 반의하면서
입학식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의 시간이 지나서
출발선상에 있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술관 관람, 뮤지컬, 비보이공연,
너무나도 소중하고 갚진
하루하루를 좌절과 원망에 무의미하게 지내는
저희에게 살아가는 지혜와
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인문학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교수님들과 뒷바라지에 애써준 이선근.. 선생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034-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이여 영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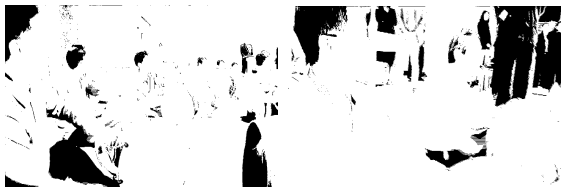


041-
자 오늘같이 좋은 날
상쇠가 덕담 한 마디 없이 지나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두드리는 소리는
졸업을 축하하는 하늘의 소리요
여러분이 두드리는 소리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풀어내는
땅과 같은 어머니의 소리이니
자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는가?
만복이 들어오라고 쾌지나 꽹꽹 둥둥둥 소리를 울려 보자꾸나

두둥 두둥 둥딱

042-
하늘보고 누운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니
우리굳게 맺은 약속
얼씨구나 절씨구나 해냈구나

(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참 좋다)



043-
교가제창
(전곡 녹음-끊기지 않게)
한걸음더
모두 한걸음어 나가자
모두 한걸음더 나가자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온세사을 두루 다니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으로 함게 배우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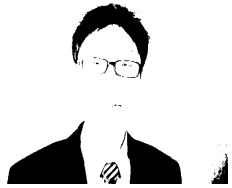
세상냉정 하고 거치나
이길 따라 가게 하소서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044-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

046-
공부하면서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평생에 이런 공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학교 다닐때도 안 했던 공부를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새롭고,
어렵지만 신기한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20090224-013
오늘 취직했습니다.
면접보고 합격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서부터 출근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좀 기다렸죠 많이
일년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했죠

스타벅스 커피기계 시공해주고, a/s 해주는 그런 데
나중에 오세요

015-
계획은 뭐..
열심히 일해 서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장가도 가고

019
우리 아저씨들이 낮 시간대에는 건강검진을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주간에 건강검진 확인의 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간이 지난 분들은 검진을 받게 해서
우리 아저씨드의 건강을 좀 더 챙기자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서 아저씨들의 불편은..

매일 체크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아저씨들 불편해서..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020-

저희는 미술치료라든가 교육 이런거 하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는 공간이 좁고, 그래서
일 문화카페 가보셨나요?
쉼도 있고, 영화, 노래도 부르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쪽 스케치를 하시면..

대신에 식구들한테 얼굴은 안 보이게 할 거다 설명을 드
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잠자는 공간이고
거기는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요
노래배우기, 영화보기

20090224-024
일반시민들이 볼 때 쉼터에서 뭘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 같아요
노숙이라고 했을 때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리에서 술 드시고나.. 이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노숙하면 게으르고 일 안하고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
저보고 하라면..
쉼터에 와서 쉼터라는 공간은 집 같은 공간이거든요
잠자고 쉬고, 일도 하러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집에서 살때의 쉼의 공간으로서의 집..
을 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데,
그런 쉼터의 모습과 쉼터에서 집같이 재 충전하면서 일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모습들
소위 사회에서 생각하는 노숙이라 했을 때
빈곤층이고,
주거를 유지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전달 되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025-
식구들 보면,
우리가 여성노숙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본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여성 노숙인은 많지 않습니다.

주요 노숙지역에서통계를 냈을 때
보통 40명 정도

026-
거리에서 조사를 했을 때 40명 정도 나오고
겨울엔 주는데,
훨씬더 많은 분들이 노숙생활을 하는 거에요

쉼터오기 전에 어디서 계셧는지여쭤보면
교회 기도원, ㅣ 철야예배 장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공간,
빌딩의 계단, 병원 대합실.
한쪽 구석.
주요 노숙지에서 집계 되지않는
사우나 찜질 피시방,.
그런 공간에 계신분도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훨씬더 많다고 볼 수 있죠

20090224-027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쉼터가 그렇겠지만,
모자가정, 아이들과 엄마가 오기도 하고
혼자여성도 오기도 하는데,
결혼 경험이 많으시고,
자녀가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어떤 이유로 노숙을 하느냐?
여성들이 어떻게 거리에서 잠을 자냐?
왜 쉼터까지 오는데?
질문은 받아요
하다못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 먹고잘 수 있는데, 쉼터까지 와야 하나
오시는 분들 일단은 결혼을 하셨던 분들, 아이들을 데려오신 분은 가정폭력을
경험해서... 오시는
빈곤층만 있는건 아니지만,
돈이 있다면 위자료로 주거를 마련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혼을 해주는 것으로 고마워
시설쪽으로 오는 거죠
결국은 주거문제로 남게 되는데,

혼자여성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거리에서 봤을 때 거리의 여성은 정신질환이 심하구나 느낌을 주는 분을 만날
거에요
심하진 않지만, 우울, 망상등 정신질환
신체적 질환을 가져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거를 유지할 수 없어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 흔히들 사지 멀정한데 일을 안 ㅎ나
정신장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 하지만, 직업을 유지 한다는 것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건데

정신장애로 분열, 망상이 있는 경우 관계 형서이 잘 안되잖아요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에요

팔이 부러지거나, 장애가 있다면 일하기 어려운 걸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 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정신질환이 있고, 치료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치료기간동안 공동 부업장 같은 것을 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쇼핑백 접기..

단순노동이잖아요
좀 더 높은 악세사리, 그거는 우리 식구들이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못하시는 거에요

일단은 저희가 치료가 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시간도 보내고, 노동의 훈련, 출퇴근의 의미가 있기에
부업장을 운영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노동이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다른 일자리를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적응되고,
대인관계가 풀리면 일반직장을 연계하는데,

식구중에 정신과 병원에서 십년동안 산 ㅂㄴ..
처음엔 길을 못찾아갈 정도로..

10년 동안 사회와 단절..
야유회, 버스,, 다 새로운 적응인거죠
이분이 치료하는 와중에 부업장을 하셨는데, 성실하게
손도 빨라지고
돈을 저축하시고 일년을 한 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공원청소를 해드렸어요
실은 걱정했느데,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거에요

028
저희가 그 분이 가서 일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전철을 잘 타고 다니실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잘 하시는 거에요

저축도 제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그 분이 혼자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립 훈련을 하면
완전히 자립해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겠구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쉼터에 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적, 가족.. 자원과
도움받을 가족이 없어요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따라 자립의 방법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업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10시에 문 여니까 열한시에 가시면..

20090224-029-
여성노숙 문제에서 쉼터가 여러곳이 있잖아요
모자, 알콜정신 재활쉼터..
재활영역이어서 정신질환이 많죠

그런데, 처음 집을 열었을때는
거리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오셨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혼잣말 하고
피해망상 같은 경우 나를 ..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망상 때문에 다툼이 일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고
취업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질환을 볼때 모습만 보면 어렵고 그런데,
저는 식구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너무 그분들 스스로가 여리고 약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리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여성한테, 다가가는데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나를 더 두려워 하는 거에요
질환을 이해하고 그 분들ㅇ르 보면 훨씬 더 약한 분들이어서
신뢰를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여시면 급속도로 변화 하면서

처음 누구든 처음 보자마자 인사를 나누고

이러는 사람은 없죠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나한테 뭘 할지 모르는데,

처음에 관계를 털때는 정기적으로 인사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잘 계시는지 인사하고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지날 때 얘기를 하셔라
계속 만남이 반복되고, 자주 보게 되면
상담 나오고 도울려고 하는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되면 작은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랫동안 얼굴을 많이 익히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한지 하루 이틀 한달 가지고 관계형성이 어렵거든요
아웃리치를 오래해야 하는게..
서비스가 믿을만 한건지 믿는 걸로 오는 거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입장에서는..
04:47
만약에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0515 당황한 일반 시민에게..

실은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노숙인이 있다 그러면은
당장 내가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저사람은 밥은 먹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럴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식사하셨느냐
같이 밥을 먹겠느냐
빵하고 우유 정도를 사다주면서
1366이라든가 전화, 경찰서, 동사무소가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 끼리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한 번 가봐라 정도
내가 움직인다면 그런 거구요
많은 사람이 그러긴 어렵고
나머진 마음인데요
어휴.. 왜 저렇게 살아ㅓ

지저분하게 뭐야 이런 마음 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봐주면 좋겠다
연민의 마음.. 정도
그러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뭔가 사회가 돕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든가
정부가 정책을 세울때 이런건 왜 안 할까 마음이 생기는데
지저분하게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순간 저 사람 개인의 문제 아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연민의 마음.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찌
좋아서 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불가피하게 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

좀 더 할 수 있다면 식사를 했는지
같이 가서 하겠느냐.. 그런 정도의 실천

하필 왜 서울역에 와서 자는 거야?
공공장소에 왜?
08:40
만약에 내가 정말 갈 곳이 없고 찜질방 마저 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겠어요
가장 안 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저는 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나를 헤치기 어렵잖아요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이 항상 많고
내가 위험에 처항 상황에 있을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오ㅛ
역에 가면 여러 가지 정보가 많잖아요
오고가는 사람의 정보
일차적인 이유는 내가 안전하니까 역으로 가는 거구
두 번째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주는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을때
가장 안전한..
거기서 나는 표적이 되지 않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한적한 지하철역에 있으면
술최한 취객이 와서 행패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안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은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다수가 있는 장소로 갈 수 밖에 없을 거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20090224-030-
쉼터까지 오시는 분은
자기 자원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가족 연계도 없고..
현재 도움 받을 상황이 안 돼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은 걱정이 안 되고
이런 분은 일정 기간 계시다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면
가족과 연계를 재형성 하면 되니까
문제는 평생 외롭게 살고 가족이 없어 외롭게 살아야 하는 분들
오랫동안 함께 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쉼터에서 병도 치료하시고, 일도 하시고
수급 생활을 하시더라도
쉼터 근처에서 어울려 살기를 바래요
식구들도 그런걸 원하고
방을 얻어서 나가도 모은 돈이 얼마나되겠어요
월세로 사는 건데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겠어요
쉼터에서 놀러간다 그러면 자립해서 방 얻어 사는 분과 같이 가거든요
쉼터가 자원이 되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고
명절이 되면 같이 놀고
야유회 가고 어울려 가고
그냥 인연을 맺었으면 뚜로 떨어져 혼자 살고 외롭고
이러지 않고 어울려서 공동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쉼터에 자원봉사 오셨던 분들이
연계되는 거?
결연이 되면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자원봉사로 왔느데,
자립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도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

남자 자원봉사자랑 세분정도가팀이 되어서
영어도 가르쳐 주고 놀이도 같이 해주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따로 연계망이 되는 거죠

따로 연결되어 네트워킹 되는 건. 두세건..
대체로 쉼터를 통해서 연결하고

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의 여성 시설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에서 여성 노숙 관련 시설이 검색되고
운영하는 곳에 찾아와 보시면 안내되어 있으니
정기적 후원, 자원봉사로 아이들이 있는 곳은
방과후 .. 로 자원봉사 하고
식구들 중 학교를 못 다녀
중학교 중퇴... 한글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 한글교육,
등 다양한 자원봉사 거리
운동.. 베드민턴.. 등 운동을 같이 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쉼터의 분과 시간을 보내는 자원보사
마음이 있으면 정기적인 소액 후원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분을 도울수 있습니다.

20090224-031-
서울역 영등포역에 인력회사 많잖아요
아침 새벽에 인력회사를 갈 수 있는 곳이 근 처에 많이 있어요
을지로에 나가봐도
을지로에 주무시는 이유가 인력에 가기 쉽다는 거구요
매일 대마찌 당해서 일을 못 찾아서 그렇지
가기 좋아서 있는 이유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 이유는 안 보이니까
당신들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있어야
어디 일자리가 있다
어디가면 굶지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정보가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기 계실 수 밖에 없는 거죠

대마찌는 일하려 갔는데,
일자리를 못 찾고 퇴짜 맞는 거에요

그거는 우리랑 똑같을 것 같아요
취업을 하러 갈때는 그렇잖아요
온갖 계획을 갖고 가잖아요
취업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도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목욕도 하고 밥도 맛있는거 사먹고
새벽에 자리털고 갔을텐데
그날 일을 대마찌를 당하면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있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수많은 계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디서 보내는지가 괴로울 것 같아ㅣ요
거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힐끗 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거잖아요
시선을 감당 하는 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쉽지 않은 시선을 하루종일 당할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상상이 안 되요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 되요

상담하고 이러다가
되게신기한게 일하고 오시잖아요
그 돈을 저녁에 거리의 식구들에게 사잖아요

밥도 막 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일해서
벌어와서 밥도 먹자고 하고
술도 한 턱 내고
실은 이게 삶이잖아요
그 삶이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거리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함께하고 나누고 싶은건 다 똑같은 인
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20090225-002
25명정도, 집은 전체 아홉집인데, 신청한 사람이 서른 두명이에요
참가 가능한 인원 골라서 집 보고 우리도 그 사람들 택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을 택해야 하니까
서로 맞으면 최종 조율하고 심의를 해야죠
누구는 몇 호로 들어가고
보증금을 조정하는 문제 남았죠

벌써 작년 11월부터 준비한 거니까
3월내로 입주를 완료 할 거에요

두시까지 와서 조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시반쯤 출발해서 보고 와야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죠

004-
내과를 봤는데, 검사를 하고 와라
두 번째 볼 때 검사
확인을 해주셔야
알수 있거든요
없는 과 말씀 드릴께요
1,2,3번 없습니다.

015-
오늘은 약하고 파스좀 드릴께요
다니시던 병원에 다녀 보세요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018-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제난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를 위해서 무료로 서울시산하 8개 시립병원이 무료 봉사
작년 12월 29일 전국 최조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차량 운영
1월 21일에 서울역광장에서 치료

배경은

019-
오늘 두 번째로 용산구 동자동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등 열개 진료, 의사 열다섯, 총 사십여 분의 의료진 진료
초음파, 피, 소변검사등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21-
우리 시립병원 나눔진료 봉사단에서 의료 취약계층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서울역에서 인근 노숙인들을 보니
생활이 불규칙하고 술, 알콜중독자들이 많아서 건강상태가 매우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빨리 아픈 몸이 치료되어서 일자리도 갖고 쉼터에 입소하거나, 해서 치료해서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되길

우리 노숙인 분들은 일단 일정한 일자리가 없고, 수입도 없다 보니 심신이 쇄약해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 알콜중독, 정신질환도 많고 한데
각 분야별로 시립병원을 통해서 아픈 부분을 치료 했으면 합니다.

023-
아픈거 없고,
걸어보세요
시방은 괜찮아요
가끔 그래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네요
혈압이 너무 높으시네,
혈압약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026-
심할때는 목 뒤쪽까지
목도 아프시고요
허리랑 목도 안 좋으시네요
엑스레이 찍어 보셨어요 ?
돈이 없어 못 찍었어요

027-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석달
그 전엔 안 그러셨는데
일반 약국에서
파는거
4개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3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드셨네요
무엇 때문에 약국을 가셨을까?
귀에서 윙 소리도 나고 잠을 못 자료
머리가 윙 하고
하루 몇 시간 주무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아침에 해가 뜨면
오전12시까지 자고
그 다음엔 앉아서 tv 보는 거죠

028-
머리가 아파서
귀에서 웅 소리가 나고
은평병원 아세요?

029-
좋은 약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약국에서 약 먹으려면 돈 들고
의사들이 쓰는 수면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라 나오는 약들은
1940년, 60년에 나온 거라
안되니
불편해도 저희 병원에 오시던지

032-
연합진료 봉사단이 오셔서 진료후
병원 가실 분 있으면
의뢰서를 받으셔서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034-
생활습관이 안 된 것 같고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036-
지금 제가 노숙인들을 무료 검진 나왔는데,
생활 습관이나 환경 때문에
관절, 피부질환.. 당뇨 많았습니다.

038-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맨 밑줄 한 번 보세요
백만원당 6670원
예를 들어서 천백만원을 넣을 수 있다면..

039-
그게 임대료에서 빠지는 거지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약정을 맺을 때
우리 진짜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안 내고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월세가 안 들어와도
백만원을 최저선으로 하고

041-
난 혼자 들어가겠다.
3룸 구조밖에 없지만,
임대주택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가 문제냐면
종로구 용산구에 집이 없어요
전부다 서울시 외곽쪽이야
응암동,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도봉동, 송파구 가락동

문제가 여러 가지 많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이 두동이 있는데,
지은지 10년, 15년 이렇게 되었어요
노후되니까
습기 벽면 곰팡이등.. 기술적인게 정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새집을 구하자 해서
이번에 새로 지은 집을 들어가는 거에요
아파트보다 더 훌륭해 집이

제공을 하는데, 걸림돌은 원룸이 아니다 이거죠

기존 남현동 방두개 구조는
필수 생활비를 몇 개월동안 집계해 보니
46만원이에요 일인당
46만원은 수급을 받아도 6만원이 빵구 난 다는 거에요
내가 조금 저거해서 삼겹살이라도 먹으면 돈이 오바 되는 거에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혼자 원룸도 좋지만,
원룸 유지도 힘들다는 거에요
원룸도 가스비가 한 10만원 나와요

042-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씀씀이가 커져서
생계비가 커지는 거에요
쪽방 고시원 22만원 이런데,
월세가 괜찮으니까 여유있게 생활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2인실의 경우 1인당 46만원 이더라..

감안해서 오늘 보시기 바라고
제가 전화해서 모신 분들은
일단은 선택받은

045-
다시서기에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이 건물이
대조동
불광전철역에서 내려서 한 백여미터 안쪽으로
우리가 확보한게
아홉게 호에 들어가실 분을 맞출라고 그러는데
판단을 하셔서
나는 원룸 아니면 못 들어가겠다는 분은
안가보셔도 됩니다.
가족단위로 들어가실 분들
난 몇 호,
써서 저한테 주시라고 표를 박아 놓았어요
성함쓰시고 몇 호 가고 싶다.
보증금을 걸 수 있는 액수..

046-
이용하는 통장 구좌 번호를 알려줄 거에요
입주가 결정이 되면은
요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몇 동 몇호 들어가세요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047-
통상 2년은 계셔야 해요
주택공사에서 몇 십만세대를 관리하는데 골치아프죠

048-
여기에 싼 저거를 지원해 드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왜 이런 임대 주택을 관리하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
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싼맛에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여기를 통해서 사회로 빨리 복귀하시라고
뒷 받침 해드리는 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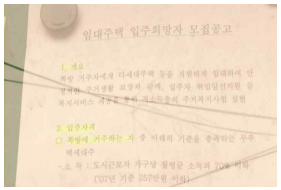
그러니 여기서 비실 거리고
현상유지 차원이 아니라
한달에 오만원이 되었든 십만원이 되었든 계속
흑자를 내셔야 되요

돈을 모으지 못할망정
임대료를 밀리지 못하면
생활태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술먹고 다른 사람한테
경마장, 경륜장 들락거린 소문이 난 다던가
그러면 빨리 나가주는 게 좋은 거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와도 퇴출..
그런 사감 역할을 제가 .

사회나가서 구직문제 진료문제
파산면책 신용회복 문제 그런 걸 저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것이 주죠

싼 집에 좋은 조건으로 편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슬슬 가보겠습니다.

049-
쪽방형 원룸이 아니야
부엌 화장실 있는 원룸에 들어가서
조금 잘못하면 술 고주망태가 되어 뻗든가
이거 웃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울증이 걸려
그래서 난 차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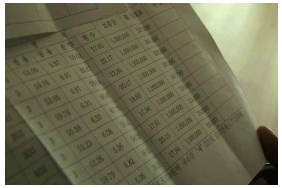


050-
공동체가 이루어 지는 거야
그 모든 것은 가서 보면서

052-
가시죠

060-
좋다
화장실
요거 요
우와 좋은데

063-
5층 하자
좀 적게 들어가는 데로 하자
많이 걸어다니지 말아야지



됐어 됐어
3층으로 선택 하자고
3층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5층이 좋기는 한데
힘들긴 하지

2층은 너무 비싸다
26만 5천원이니까 생활비하고 하면 오십만원은 있어야돼
생활비 저거다니까
사오십만원 잡아야 한다니까
오층이 밝기는 밝구만
4층이네
23만 4천8백원이네
어떻게 할래 3층할거여?

여기 501호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은 좋아요
좋은데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망설이고 있어요
보증금만 있으면

066-
찬장, 방 세칸 다 잘되어 있어

071-
선생님은 302혼데 백만원 가능하시고
통으로는 못 드려요
세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명까지는 인정하겠다고
혼자서 이걸 다 드립니까?
집 식구랑 같이 저와 상담을 해보시고

20090305-005
성균관대학교 4학년
신문방송학과 정세련

올때는 노숙인분들이 많다고 해서 일하는데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해야될 일도 많은 것 같고
이 일을 지원했어요 도서정리..
이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다니시고
노숙인분들이 쉬고, 문화생활도 하는 공간이라 하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틀째
어제는 지하1층에서 하고
책이 많아서 놀랐어요
이런 책들 다 후원이 들어와서 놀랐고
열심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놀랐고
와서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 굉장히 많고
좋은 경험도 되니까
한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진짜 들어올땐 새거라고 했는데,
읽은 흔적도 많고

다 새 책 정리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후원받아서
오래된 책도 있고

별로 어려운게 아니라 엑셀하고 워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드는 생각은
저는 노숙자분들이라고 하면 다 보통사람들이 그런 걸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누워 계신분들..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겠다고 들어오니까
30~40분 계시다가 나가시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고
시설 같은데 모여서 계시는 거 신기했고
생각했던 것 보다
다른 것 같아요

006-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장정은

vms에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007-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책 들 보니까... ?
생각보다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좀 책종류도 다양하고요
열심히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신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좋고
한번씩 가보면 되게 편견이 많잖아요
오기전 그랬는데,
와보니까 가깝게 느껴지고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첫날 책 정리하기 전에
이런 책이랑 여기 계신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뵌 거는 나가시는 거 뵌게 처음이었어요
저희한테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좋았어요

20090305-008
휴,일,문화카페

012

부업은 좀 다른데 나가서 일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 계
세요 대인관계가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일을 가르쳐 드린 다음에 자리를 마련
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덟분 정도 하고 계신데,
공간이 부족해서 쇼핑봉투를 접는 작업이 공간이 좁아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종이접는 작업 자체를 어려

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을 하루에 여성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천원 정도씩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적는 작업 드리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말 들었는데,
체감을 하는데, 많이 줄어서 3일정도 놀고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봉투를 납품하시는 사장님께 받아서 드려야 하는데
3개월정도 밀려서 나가니까
솔직히 생계에 크게 도움은 안 되세요
근데, 수급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세금을 내거나
이런 일을 하면 수급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014-
일년전까지 40~50대 이용자가 주였는데,
지난 가을부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요
20대 중반..
이 부쩍 많이 느셨어요

한창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
한두분정도 구직하고
자활, 정식일자리를 찾기 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

많이 다툼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딪히는 일들이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다른 실무자..

비디오.. 후원 받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영화상영 시간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폭력적, 자극적인 장면을 못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화는 힘들어 하시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타지를 힘들어 하셔요
한국영화, 드라마 쪽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한계가 있고

상영시간이 너무 길어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두시간 넘지 않게
오드리 햅번, 사운드오브뮤직 같은것도 좋아하시는 거에요
욕구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옛날 영화를 찾는 거에요
일반 대여점에선 구하기 힘들어서
다시서기의 타이틀을 보라 했는데,
갔다 보긴 그렇고
타이틀을 후원 받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잡지책 같은 것들
요즘엔 책을 빌려다 보시는 분들이 늘으셨어요
전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갔다 놓는 거였는데,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만화책도, 잡지책도 좋아하는데,

잡지, 만화, 비디오 타이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취지는 얘기를 나누는 건데,
이런 영화가 있다..
가끔 짤막하게.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015-
케이블에서 하는 영화.
30분마다 광고가 나오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오려 걸려지고 그러니까

내일 미정입니다.
제가 대여점에 가서
님은 먼곳에..?

017-
부업하시는 분들이 웬만큼 일거리가 있을때는 희망자만..
자리도 협소하고
1,2월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간식도 드리고 싶은데,
그거 드시는 맛에 보는 분도 계시니까

018-
놈놈놈... 극장에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019-
액션영화 이런거 보자는 분도 계세요
그 분은 영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인것..

020-
청춘만화 ... 젊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하긴 하는데,
올드미스다이어리를 틀어드렸는데,
상상신이 많고 그러잖아요
약간 어리둥절 하시는

021

024
이래도 벌이해요
어쩔때는 만원, 팔천원, 사천원..도 벌고
새벽도 다녀야 하고

027

아 이거요
저희도 이 일 자체가 일반 기게로 할 수 있는 직장생활 하는 것 처럼 공간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분 소개로 하게 되었어요
만족하세요?
충분히 잘 해주시니까
매일같이 해주셔서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28-
일거리를 개발은 하는데, 일이 많지 않고
의류쪽도 한번 컨택해 봤는데, 그게
동일한 원칙을 변형해서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수출용악세사리도 했는데, 어려워 하셔서
단순하기도 하고 약간 비용도 있고
이런 걸 구해야 하는데, 많이 없어요
대금이 밀리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029-
음악을 틀어 놨었는데,
젊은 분이 많아져서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게 전혀 없었는데,

031-
상담을 해보는게 어떻겠는데,
2006년 8월에 들어와서 10월부터 거리상담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매일 하면서 여성분들 만나고
처음엔 도망가고 그랬느데,
한 이년되니까
안면있고 그러니까 반가워 하는 사람 반가워하고
처음뵈는분 경계는 있어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서기도 하니까
지원할거는 지원하고

교회계통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안되어서 맛만보고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들어온 거에요

..
하다보니까 제가
상담쪽 관심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나보다
사명이 있으면서 섬기라고 일하는.. 기쁘고 즐겁죠

다 겪어보니까 술이면, 술에 대한거 가정이면 가정에 대한 거 자녀들을 키우니까..그런거 집안에 있었던 모든게 다 종합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참 괜찮다 거리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나를 보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032-
찬데서 자는데 무슨 약 먹어서 효과가 있어요
전화 해야지
오늘 나오실 거야
원장님
수요일은 나오시더라고
소장님?
아가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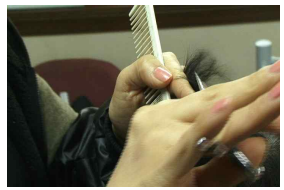
033-
여기는 쉼터에 계신 분들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047-
어떤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같이
봉사를 하신다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봉사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오게 되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
직접 만나보니 어떠신지.. 전혀 저거할 거 없어요
앞에 계신데 말씀을 ..
처음올땐 약간 조금
좀 마음이 그랬는데, 와서 겪어보니까
전혀 옆지 아저씨.. 가깝게는
오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오빠도 거의 육십 다 되었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까
아직 알아보는 분은? 없겠네요. 네 고정팬이 아직 없어요

049 -
4층.. 여기는 침대방..
베게로 쓰지 말라고..
책을 많이 갔다 놨어요

054-

미용봉사 가위의 현란한 모습...



055-
저는 맨 처음 미용을 하니까
봉사도 해야 겠고..
하다 보니까 미안하잖요
내가 배우면서 하니까
나 도움 되려고..
이제는 그거를 지금은 이제는 할 줄 아니까
정말 내가 봉사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에요
여기는 오늘이 처음이고요
다른데는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죠
여기에 고정으로 다니는 선생님 한 분이 무슨 일 있어서
못 나오게 되어서 대신 대타로..
근데 탁 찬스가 딱 맞았네요

057-
058-

061-

* 머리깍는 과정에서 재미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깊음.

더우세요? 아니요
비오는날 나셨어요? 똑똑하시게..
통계학적으로 비오는 날.. 태어날 때 비소리 똑똑 들어가며
나와서 처마끝에서 비소리 똑똑 뜰어질 때 나왔으니 똑똑하겠지.

내 친구 있는데,
정신이있어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언제 들어와요?
글쎄 정신이 왔다갔다해서 모르겠다..

긴 얘기 짧게 해줄까요?
삼국지 얘긴데,
유비관우장비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명보극장에 가서 막내 장비한테 표좀 사와라
유비와 관우는 돌쇠다방에서 기다리는데,
표사러간 막내가 안 오는 거야
그놈 어디서 술처먹고 행패는 안 부리나 나가봐라
형님 큰일 났어요.. 달려온거야
경찰차가 오고, 매표소가 부서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
표나 사올것이지..

형님 저거 보라고 화 안나게 되었냐요
뭐라고 써있냐면
조조할인.. 써 있는거야
적장 조조만 할인해 준다고 ..

정말 웃긴다.

062-
여기 선생님들..
대부분 선생님들이 짧은 머리를 선호하시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
스타일.. 자유자재로 하는데,
여기있는 분들은 짧은 머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색해..
내가 얘기해도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들 봤을 때
길러도 멋있겠다 얘기해도
머리 간단하고 관리하기 편한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나 짧은 머리.

그쵸?
네.. (웃음)

옆하고 바짝.. 짤라주세요

대부분 머리가 다 비슷하게 짧고, 스포츠.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도 얼굴에 맞게 잘라줬으면 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짧게 짤라주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권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짧게 해달라고
누구한데 보이겠냐고? 웃으며..

미가 목적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내가 힘드니까 머리에 특별히 신경쓰고 싶은 여유가 없는 거에요

짧은 머리가 관리하기 편하지 않아요?

20090305a-001

미용서비스 많이 왔었어요
전에 한 분하고 새로 바뀌셨어요
지금 하시는 분 더 좋죠.. 아이구..
깍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빵꾸낼라고 했었어..
웃으며 농담하는 분위기

아..너무 고맙고요
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
더 좋은 일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저희들도 솔직히
도움 주는 것도 그렇지만,
하면서 만족.. 서로 고맙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이제 너무많이 찍지마시고..

002-
저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건데
봉사하는 자체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천사죠

자원봉사 많이 해봤는데,
마음으로 몸이 안 따르더라고요
집에 애들도 있고
거기에 신경 많이 쓰이고
마음은 있어도 못 해요
생각만 있다 뿐이지

일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이 일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이런 데가 있다는 것만 으로 다행스러운..

이번에 처음했어요
더울땐 일이 없고
추울땐 일이 있고

20090305a-003
배낭을 잃어버리고 비관한..
김민수 선생님이 끌어 안아주고
심리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보잘것 없는 가방이 자기를 버텨주는 족보, 뿌리..
그걸 잃어 버리면 뿌리가 뽑혔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분은 어머님하고 죽 자라서..
계속 고아원이라든가 집단 생활을 많이 해서 동료를 사귀지 못하고
피해요
사람하고 친하고, 동료도 친하면 서로에게 벽이 없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불쾌, 반응, 싸우게 되고
그분은 친구를 안 사귀는..

그분들이
혼자 살았던 지시만 받고 살았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자괴감이 안 들겠느냐
그분은 잠도 혼자 떨어져서..
서소문 공원 같은

자기의 소중한 분신이었던 배낭을 안 메고
술먹고 다니는 모습을 봐요
그게 아마
자기는 지금 인생이 그래왔듯이
배낭이 없어지면서
가끔 광장에 나와
거기에 중요한 것이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그것을 잃어 버리고 마지막 자기의 정체성이라할까
마지막 보루인 배낭을 잃어 버렸다는 것에 대한

왜냐면..
신분증을 가끔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신분증 자체가 자기를 보호해 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을 때 사회구성원이라는
신분증을 잃어 버리면..
내면에서 깊이
자괴감이 들것 같아요

007-
선생님들 면접 보시는데, 재미있는 거에요
솔직하게 나누시는 거구요
친구사귄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인사하고, 소개하고
표현하는 자리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기대감을 표현하셨잖아요

말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표현하실 순간이에요

009-
여기 인문학 면접 보러 왔어요

020
자전거 사업단 정한종입니다.
김민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가
나도 뭔가를 배워야 안되겠나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합격되면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여기 일년 과정이라는 것이
책도 많이 읽고 오셔야하고
일학기 같은 경우 철학 문학 글쓰기
특강이 있어서
그것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라고 매주 드렸느데,
그래도 소설도 읽고, 드라마 작품도 일고(연극 희곡) 수필도 읽고
윤리학 책도 읽고 아마 선생님들이 그것을 읽고 느낀 것을 글로 옮기는 연습들
자기 생각을 글로 담는.. 것이 중요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년이 짧지 않은 기간이라..
짧지 않습니다.

021-
내가 일년을 꼭 해보겠다
내가 의미있는 일을 꼭 만들어 보겟다..
굳은 마음으로 지원을 하시고,

김석두 선생님.. .목동 생활..
인문학을 신청하는 계기하고 목동하고..
그거는 자기에 대한 뭐를 쓰라고 해서
봄이 좋잖아요
양이 깡충깡충뛰는데, 동물들이 먼저 알아요
기억에 남아서
인문학적 감수성..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린시절을 써 주셨는데,
인문학이 뭐라고?
국민학교 밖에 못 나와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딱 인문학이 뭐냐면..
목동 .. 들어보면 예술가가 수필을 써 놓은 것 같은
어쨌든 감수성이 뛰어난..

20090309-002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자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합격하시면 일주일에 세네번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답사, 엠티도 가고
 미술관도 뮤지컬 영화관,, 소풍 산에도 같이 갈 거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함께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그게 다 배움의 과정이져ㅛ
내가 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게 벌어지지 않았나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선생님들께서 일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만두면 다른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합격 통보를 받으면 굳은 마음으로
의미있는 삶을 만들어 ㅂ겠다는 의지를 가져보고
다 뽑지는 못합니다.
많아야 스물 다섯분정도
안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 자리에 지원하셨을때의 마음..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문학이 별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고
글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분들의 지혜를 깨우치려는
올 일년
내년 앞으로 훨씬 의미있는
앞으로
예로..
선생님들 알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고
자주 나오면 반갑게 지내시죠

003-
둘째로는 수학능력
수학능력이 부족하면 그만두는 분이 많고
셋째로는 동료들과 위화감을 만들지 않는 분.
읽기가 약간 안되시는 분들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수학능력이 뛰어나고 오늘은 읽기 문제가 있는 분이 꽤 여러분.
아무래도 읽고 이해력이 곤란하면..
저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이런 인문학중에 노들야학이라고
잘 못읽고 이해 못하는게 당연한데 하는 거거든요
어떤데 초점을 둘 것인가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
내 삶을 바꿔 보고자 하는 마음 가짐

모르겠고 그렇게 하시면
중간에 도태되기 쉽거든요
내 인생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분을 뽑게 되겠죠

작년엔 의지만 있으면..
이번에는 인원이 엄청 넘칠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지난번 경우 '동행' 보고 신문 보고 인터넷 뉴스보고 오신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004-
커피 한잔 하시려고요
저 안에 들어가 보세요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지내면서 처음이지요
특별하게 떨리는 건 없어요

005-
대화를 안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막히더만.. 잉

2090309-021-
이불을 삼일동안 빨아야 해요
5층, 4층 3층
수건은 매일 빨죠
한번 걷어다 빨잖아요

아침에 와서 150장 빨고
울려다 주면..
거둬다가 빨고
두시되면 한 번 더 빨아야 될거여
그래야 저녁에 자러 오는 사람들 이거 하나 가져가서 자고
수건.. 많죠 200장..

022-
담요 20장에다가
엄청나죠 이불.
여기 5층에 팔십장
4층에 팔십장
3층에 백장
담요는 담요대로
요거는 침대로

023-
이 기계를 내가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024-
본래 술 담배를 안먹어요
뭐 잘못해서
앞으로 계획은
돈을 모으면은
한 이삼백 모으면 오징어포 장사..
그거는 뭐 오래 나둬도 상하지 않으니까
구루마 하나 맞추는데 50만원. 달라니까
다니면서.
저는 사연이 깊어요
전쟁고아거든요
백령도 건너편이 고향이에요
내 동생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겠고
할아버지가 목사..
6.25가 터지니까 잠깐 나갔다 오라고.. 60년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동아 전쟁때 행방불명
나혼자 넘어와서
그당시 초등학교 일학년 다니다가

옆집 아줌마랑 갔다 오라고 해서..

담임선생님은 수원에서 폭탄 맞아 죽고
화장실 간 틈을 타서 폭탄 맞은거야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3년후에 서울역 뒤
봉래극장 영사실에서 있다가
구두딲이 신문팔이 다 했죠
저거하니까
연립주택을 많이 졌다고
공사 따라다니다가
모가 잘못되어서 25년 징역살고 나온지 얼마 안 돼요
1970년도 5월 5일..
그때 당시 박동선 살인사건 유명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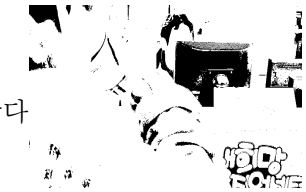
우리가 돈 받으려고
일 하고 연릭주택을 많이 져서
우리 공구리, 철근..
2년동안 돈을 안 주니까

0757-
4개월이면 끝나는데,
방세 14만원 주고 나면 39만원 받아서 안돼 이거
몇 달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사를 해야죠
오징어 장사를 할려고 200만원 모아놨어요
한달에 4만원써요
그렇게 살았어요

025-
4개월 끝나면 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못 한다고
눈이 많아서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달 4월까지..
두달있다 올지

035-
일 찾는 거에요

글쎄요 일자리가 있어야 찾죠



없어요..
어떤 일 ?
서울시 일자리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신청 접수 끝났다고
언제 접수하는 거 없고요?
자리가 비면..
그때 새로운
그때 접수?
이제 인문학 끝났으니까 일을 해야지

036-
특별 자활근로 저건 뭐에요?
센타 내에서 자활 근로 하는 거에요
일반 자활근로.. 인데 다른 데서 하는 자활근로랑 틀려요
센터 청소, 주변 청소, 야간 거리 상담 하시고,

급여는 다른 일반 자활보다..
여기 자활근로는 391,000원.

이제 조금 있으면 5기 들어올거 아냐?
인문학 한 것이..
인문학 하는 건 뭐 좋아요
생활도움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면이 깊어지니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그런 점이 좋죠

요즘은 어디서 주무세요?
쪽방에 있어요
일 못하면 방 빼는 수밖에 없죠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도둑질도 못하고

일자리를 그동안 몇 군데 알아봤는데,
나이 때문에
나이가 60 되었는데 그게 쉽게 되요?

주민등록 나이는 55년생..

근데 4년 낮췄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20090312-001
열린여성 영화보기 프로그램

006-
두시쯤에 출발해서 네시까지 가서 네시부터 여섯시까지
애들과 학교 갔다 오면 공원에 가서 가르쳐 주지
다들 모여서
자전거를 분해해서
2주 갔다 와서
처음엔
먼저 주엔 분해해서 다시 만드는거.
이번주 부터는 거기있는 자전거로
딱아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할라고 하더라고
여자애들이랑,.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네 자전거 있으니까
기술 배워 놓으면
민수가 가면 잘 놀잖아요
환장해요 환장해

010
전철타고 사십분 거리
수유리, 노원..

013
나에게 자원봉사?

난 자원봉사 하는 게 좋아요
내 체질이에요
기뻐요 하고 가면,
얻는게 많아지는 것 같고

여기오면 남자분들이 만잖아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바리깡은 한 두 번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각도 같은 거 올라올때도
여러번.. 많이 해봐야 해요
좋은 일 한다샘 치고
순수한 자원봉사잖아요
급여 없이
그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하니까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상부상조 좋은 거 같아요

습관?
그분들 보면 머리만 보여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디자인 보다 편리함을 찾으니까
짧게 미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선입견 갖고는 못하죠
진짜
찌들려 있으면 사고 자체가 거칠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순하고, 순진하시고 옆지 아저씨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봉사하기 편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도 다녀?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 분들 우리가 와서 머리깍아주면 기뻐하시고

021-
오늘 원래 여직원반 남직원 반인데요
사무실에 사정이 생겨서 남직원으로
여기는 제작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햇수로 3년째.. 저는 3년차

노숙인에 대한..
사실 그전에 거의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분들한테 배식을 하면서 진정한 모습도 보고
할 수있는게 있는데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계신거 같아
대부분 할 수있는 분들..
아저씨 식사 잘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요
저는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김종화 차장입니다.

029-
남현동 주택 한 번 구경가시죠
오늘 새로 입주하시는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집구경을 한 선생님도 계시고

사람들 만나고 뭐 하려면 시간 부분이 늦어지죠
거기 13명 계시고

031-
선생님 근무지가 어디죠?

032-
9월에 만기되어서 나갈거고
여덟집이 우리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033-
그러면 내가 살림방을 한 번 마련해 볼게 그러고 있죠
많지는 않죠
이 친구는 언제 무너질지 위태한 면이 있어도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 전력이 음주니까
스타일이 한 달 두달 쓰러질때까지 먹고
몇 달 멈췄다가 먹고 하는 스타일이라..

인문학 하면서 주기가 길어졌어요
잘 견뎌내길 바라는 거죠

036-
예술인 마을이라고 단독주택이 있는 고급주택이었는데,
다 허물고 다세대 연립 짓고..

그때는 여기가 굉장히 부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룸 투룸 위주로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구성이 원룸 네 개 투룸 다섯 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요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037-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처음엔 쪽방, 비닐하우스 상담하는데 알아보니까
다시서기로 와서 상담하고 임대전세를 알아보고
일단은 방이있고 넓고 깨끗하고 그러면은

039-
음악이 흘러나오는
안녕하십니까
나 여기 놀러 왔다가
방송국이여..
예,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방송문 열어놓고요

'눈부신아침 햇살에.. '
내마음도 흐르네..
밥 딜런

광주에서도 팬이 부쳐주고
보러 왔는데 진짜더라고요
이거 김치.. 같이 먹는 거에요
자랑을 많이 해서

그쪽 냉장고 내거하고 완전 틀리지
선생님은?
나는 고시원에 있죠
고시원에 있다가 보면 부럽죠
나도 진작에 ..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꼭 들어올 겁니다. 돈이되는 대로

이선근 선생님한테 대충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취직해서 다니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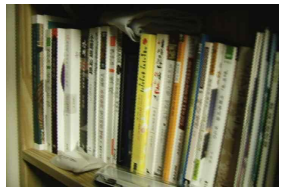
팬이 보내온 반찬..
그래서 지금여기 이대진 선생님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는데,
살려고 노력하시는 ㅂㄴ
몸이 약ㅎ잖아요
인문학의 힘이 크다는 걸 알아야지

나는 여기에 가끔 놀러오면
여기서 희망을 얻는다니까
남이 사는 걸 보고
이대진 선생님 같은 경우
퇴근후 드러눕고 싶은데
뭔가 더 큰 이상을 향해서 음악 방송을 하고
혼자 있으면 뭐 술 생각밖에 더 나겠어요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만 오고 싶다니까
깔끔하게 사는데, 누가 어두운 과거를 알겠어요

040-
거기를 벗어나야해요
엄청 좋지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와서
맘 자세부터가 힘들어져요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더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에요

보니까 저것도 누가 저런걸 생각하겠어요
퇴근해 오면 피곤하니까 술 하잔 그럴텐데..



041-
하나도 안 버려요
심심할 때 꺼내서 읽어요

엠비시 시사매거진인가에서 토요일 저녁 다섯시에 일하는데 찍겠다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걱정
내가 노숙자라고 하면..
거기는 인문학이 유행이 되고
너도나도 인문학 개설을 많이 하고 센터의 성공한거가 신문에 많이 나와서

동참을 해서 사람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까
그걸 찍고 싶다고
난 안해본 게 없어요
사회생활을 십 삼사오년 했는데,
노숙은 얼마 안 했는데,
안 해본게 없을 정도로

근데, 챙피하면서도 올린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처지만 생각해서좌절하지만 말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해보자
여러사람이 내 글을 읽고 공유해 봤으면
못할 일은 없고
하다보면 일에 취미가 생겨서 하게 되더라고
해만뜨면 어딜 가야하고
그러다 보면 공원에 배회하고, 술이나 먹고
아무대나 쓰러져 자고

지금은 해가 뜨면
저는 천원이 됐든, 백원이 되었든..
날 불러주면
차비빼고 점심 먹고 하면 별로 안 남는데,
이걸 기반으로 다니면서 꾸준하게
이런 용역이나 소개하는 걸 싫어해서 다이랙트
내가 직접 섭외를 해서

인문학 이후로..
습관처럼
달라진 거는 시간 나면 책을 보고 싶은데 돈은 여유가 안 되니까
서점에 많이 가요
앉아서 책 읽는.. 서점에 많이 가죠
마음에 있는 목록
이외수의 글쓰기의 공중부양..
내용을 읽어 봤는데,
글 쓰기의 정석이라고 해서 일년동안 배웠는데,
약간 쉽게 나왔더라고요
교수님게 물어보니까
참 잘 나왔다고 교재로 채택해 볼 예정이라고

이외수씨 책 ..
거기서 보고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그동안 가르쳤던 교수님이 공동집필 했더라고요

전에는 뭐.. 잡지나, 판타지 무협소설 그런 거 보다도
역사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예술 서적도 기웃 거리고
그런게 좀 달라진 면

후배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몇 번 망설이고 몇 번 빠지고 했는데,
포기하면 자기 손해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다 보면
포기한 사람은 댓가가 있더라고요
포기하고 배회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용
중간에 고만둔 학우들..

마음 먹었을 때 해야지
조금 귀찬다고 해서 포기하면 마이너스

저는 이거 한 번 와서 보고
이대진씨를 귀감을 많이 삼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졸업해서 살더라도 한 두 사람 잘 되는 사람 있으면
귀감을 해서 이끌어 주고

내가 어려울 때 의논도 하고 서로
그런게 좋더라고요
고시원은 좁고 그래서 모이기도 그래요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에요

베이스 캠프/.
여기를 기반으로 정상으로 가자
관악산도 있고

042-
인문학 선전해주고
나보다 못하 사람들이 도움이 되면
설사 고만두는 한 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겠다고 했어요

자산관리 공단에서
문서를 기존의 서류를 다 분류해서
디지털화 시키더라고요
목록을 찾아서 주는 겁니다.

일이 뭐 조금씩 받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한문도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게 항목이 백가지가 넘어요
필요없는거, 필요한 거를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서류가 10년된...

뭐하세요?
심심해서 인터넷 방송합니다.
오늘 반찬은
여러 가지 다운 받는게 많아요
say club
몇 명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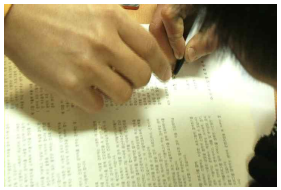
일하시는 건 어때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나가면 하루가 금방 가고요

출근은 매장으로 출근하니까 매일 틀려요
출근 퇴근때 보고만 한 번씩 하면 되고요

044-
우리 가족 만나는 거죠
제일 큰 저기가
5기생 중에서
그게 제일 성과 같아요
가족 만나서 단란하게 사는 거

너무 그생각만 하면
노력은 하는 중이고
내가 어느정도 안정만 되면
그게 주변을 슬슬 건드리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고

연락을 거의..
그렇죠 할 수가 없고
내가 워낙 여러사람 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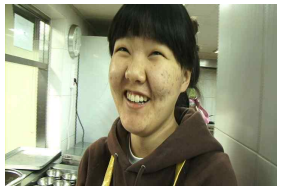
45. # 20090317

001-
외국인이래
그러니깐 그 아저씨가, 반말을하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욕먹지.
그런데 외국인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를 잊어 먹은거야.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반말을 하는거야.

건배~ 멋져부려

* 노숙인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봉사자들의 모습
또한 힘들 수 도 있는 급식봉사를
힘든 내색 없이 봉사 끝날 때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들...
과연 이들처럼 노숙인들에게 웃음으로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노숙인들을 위해 항상 즐겁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노숙인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해보지 않을까.

011-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인터넷으로 알고 되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싸이월드요.
노숙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왔어요.
열심히하겠습니다.
사랑과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019-
날씨는 뭐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찬바람이 불고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한달 간 더 해야할 것 같아요.

020-

021-
을지로 입구.
아니지 나의 고향은 서울역이지.
겨울에는 그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깐.
나는 뭐. 오랫동안 뱃일을 했는데
일단 바다에 있으면 육지가 그리워도 나올 수 없으니깐
그냥 참고 일이 되는데
육지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일이 안 돼.
조금 하다가 누가 좀 뭐라고 하면 돌아서는 습성이 있어서
성질에 못 이겨서.
직장생활도 잘 못하고 노가다를 뛰는데
올 겨울에는 노가다도 없고 힘들고, 점차 더 여려운 것 같아.

022-

그렇지 나갈라고
요 한 봄 정도 되면은 일이 좀 풀리는데
그때도 작년처럼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는 대기업들이 거의 현장 올 스톱을
하는 바람에 더 어렵다고 봐야지
직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인력사무실이나 이런대서 많이 나갔는데
올겨울은 전혀 올 스톱을
하루에 두세 명씩 나가는데 그런데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나
100명이 나가서 두 명 세 명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깐 포기를 하는 거지 어차피 가봤자
나가는 건 매일 나가지 일치감치 출근을 하지
새벽5시에 꼬박꼬박
숙대입구
회현쪽은 성공인력에 있는데 거기는 더어려우니깐
더 갈수가 없고 기존 멤버들이 있으니깐
걔네들도 이틀에 한번 될까말까한데 나까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포기를 하는 거지
나는 술하고는 보편적으로 술도 마시고 앉아서 쉴 곳도 찾고
갈 곳이 없으니깐 쉼터에 와서 누워있고 쉬기도 하고
일을 나가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니깐 못나가니깐
일을 나가게 되면 쉼터생활을 덜하게 되고 사우나나 이런데 고시원 같은데
얻어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니깐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 방빼서 여기에 들어와있는거잖아. 그만큼 힘든거야.
뼈저리게 느끼지. 뼈속에 바람이 들어올정도록. 지금실정이 그런 것 같아

*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노숙인의 신발

023-

025-

기본이지.
요즘은 짤짤이도 민증없으면 못받아.
민증까야되.
그럼 그거 보라그러면 많이줘야지.
500원.
허허허. 500원 주는데 민증을 왜 보여 달라고 그래.
걸음 품팔이도 안 되겠네.
받고 또 받으니깐.
그렇지. 이름 적고 주민번호 확인하고.

026-

쌔죠.
일요일 날 일산 돌면 만오천원까지 나온다는데.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일산은 너무 힘들어서
원당에서 화정까지 해서 마주까지 걸어봐. 죽지.
원당이 첫 코스인데 마주까지 걸어가는 거야.
걸을 수 있겠어요? 우린 걸어요. 돈 만주면가.
친구있잖아.
서울역에서 부천까지 걸어간 놈. 미친놈이지. 정신나간 놈.
기차타면 될껄.
남인천에서 역삼역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8시간?
한강대교 타서. 한강고수부지로 해가지고
남 인천에서 구로 한강대교 거기 한강공원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논현 강남 역산

* 인간 네비게이션 노숙인.
짤짤이 여행길...
노숙인들의 교통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
요금은 지불하는 것이 아닌
튼튼한 두 다리에 대한 보상...500원.
그 500원을 받으려 먼 길을 걸어갈 수 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을 채우려는 걸음이 아닐까.

027-
기다려 백년만 기다려
돈 벌면 한보따리 사줄게.

못배웠으니깐
좀 배우라는건가 부지.

030-
얼마나 황당하냐 이게.
그랬더니 거의 끊어지고 새로 생긴거야
그러니 나야 모르지. 2년동안 안돌아 다녔는데.
이번에 딱 도는데
세상에 세상에 산넘어 산넘어 전에는 산 2번 넘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산넘어 산넘어 산넘어 산넘어 산너머야.
와. 산 4개 넘어야해. 돌아버려 돌아버려
이게 어떻게 짤짤이 코스냐고.
사람이 등산코스지. 요번에는 진짜.
그 때는 도로로 해서 산을 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등산로야 산을 진짜 넘어야해
그래가지고 도시락 타먹고
야. 완전 돌아버려 이거. 야 산넘으니깐은.
어떻게 그런 길을 알았나 몰라. 산에 길이있어 넘어가는길이
진짜 산을 넘은거라니깐. 그냥 산넘는거야 집도 없어
수요일 날 사당동 거기에도 산 넘어 하나 있어. 한강대교 넘어가기 직전
거기도 넘어 서면은 밥 줘. 도시락
목요일 날. 사당동 목요일 코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월요일 날은 오산 가야하는데, 오산 코스는 너무 힘들어
진짜 그거는 상상을 못해. 갈수가 없어, 사람이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걸어서 수원에서 오산까지 걸으냐.
그런데 걸어 2500원 나와. 내가 2500원 안 벌고 말지.
화요일 날 둘이 가는데 노인네들 있잖아. 지팽이들고. 우리가 먼저갔거든.
젊으니깐. 돈 받을 때 보면 제일꼴찌야 제일.
얼마나 빠른지 지팽이 진사람들이 날라다녀 새. 날개달린것 처럼.
그 쾌락감. 우리는 걷다가 지치면은 아유 힘들어.
노인네들 그런거없어 진짜 잘걸어.

요즘에도 노인네 우대증이 있어가지고 60넘은 사람들만 천원 씩 져줘.
가면 준데 나도 딱 가서 섰어. 돈을 딱 주려고 하는데
아줌마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사람 50안 되었어.
머리가 혀였잖아. 둘다 50안넘었으니깐 안된데.
무슨소리냐고. 주라고
줫다가 뺏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그게 오전코스 딱 돌고나면, 오후에 잠실 돌면 4000원 나오는데
도저시 못가겟는거야. 3호선 타고 을지로 역에서 2호선 갈아타야하잖아
남들은 가더라구. 나보고 안가냐고 .
오전이 너무 힘드니깐. 오후코스는 갈 마음이 안 생겨
아니지. 저녁 6시 까지 못 들어오지
그 사람들은 난장까야해. 난장까던 사람들이나 거기가지.
좌석에 밥먹으러 들어올라면 12시 안에는 들어와야하는데
지금은 틀려 오전 오후 다 있어 좋다니깐
저번에 저 쫑국이랑 나랑 일요일날 4000원 받아서 홀라당 해먹어서
다시 저 대방동가서 저녁예배보고 2000원 주거든. 거기가서 얼렁 받고 나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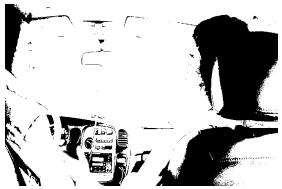
031-
차라리 서울역에서 꼬지하는게 나아
아는 형들만나서 오백원만줘 천원만줘 이게 좋지
옛날에 이대돌면 최하 못해도 4~5천원 되는데
죄다 끊겼어. 이젠 주지 않지
300원짜리 천주교는 진짜 8년동안 꾸준히 주더라
그러니깐 그게 교회 문 닫아야지. 오죽 어려우면 교회를 가냐고
그런데 구제비를 깍어. 그거 올려야해. 기본 천원씩 해야해.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200원 300원 받는데가면 돌아버린다니깐. 이거 받을라고 25리를 걸어왔냐고
돈 몇백원 받을라고 그걸 걸었냐고

033-
사당이요. 숱하게 나왔지
고향 같은 동네지
서울역은 우리 본적지고
우리는 서울역 그 찌린내를 맞아야 잠이와

034-
일단 어린 숫자대로. 나이별로.
이리와봐.
나이 많은 사람은 삼청교육
나이 어리면 다 아동보호소
이새끼 안되겠구만. 다 섬으로보내버려

아침 8시 까지 학교 출근해가지고 ·12시까지 공부
그다음부터 4시까지..

이 작은 손으로
뿌러지면.. 뿌리채 안 뽑았다고



애들이 풀 못
검사해서 부러지면..

내가 알기로는 그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뭘 독해
나는 그 안에서최고 모범생이라고
* 고아원 생활할때의 어려웠던 것을 자세히 들으면 좋겠군..
인문학 할 때 한 번도 안 했지.
나는 결근 안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지
이유없이 결석을 해야지 난 이유가 있잖아
힘들어서, 피곤해서 , 잠자다 보니 늦어서
이유가 있으니까 못 나온 거지

035-
차라리 경마공원 가서 노는게
잘 해봤다니까.
이쪽으로 내려 가는게 빠르죠?
036-
짤쫄이 코스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너무 어렵게
평지의 교회는 돈을 안줘
난 코스의 교회는 돈을 잘 줘
오늘같은 날
절 한바퀴 돌아야 하는데
절에가면 20키로짜리 쌀 한 포 주잖아
돈이 얼만데

037-
세상에 좋은 절 가야지
쌀 40키로짜리 이고 가라고 해
그걸 어떻게 이고 가..

038-
스님이 한 분.. 쌀 받아서 못 지고 내려오겠으면 전화하래 차가지고온다고
몇 번 팔아먹었잖아 그런 추억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스라고 드러운 데만

039-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041-
* 망치질을 통해서 몸에 베어 있는노가다같은 삶의 흔적이
느껴지다.
휘어진 못 피기.

044-
공부방은 이런것들이 필요하고
아마 공부방하고 대안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될거에요

인근지역에 학교 .
공부방에도 같이 할수 있을 듯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045-

046-
*고장나고 녹슨 자전거가 노숙인들과 아이들의 손길로
새로 태어나는 모습

애들이 빨리 모이면 2대 허고
인원수 안모이면 1대
고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거할까 이거하고 이거
상태는 거의 안좋죠
다 닦고 애들한테 어떻게 분해해서 닦고 기름칠하고 바퀴 잡고 다가르켜 줘야지

047-
여기는 모락산 아이들 실띄기 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했어요
날개달린 자전걸
그냥 재미있게 하려구
아이들이 안을 냈어요 제목도 하고
아이들 반응이 좋죠

049-
4시 좀 넘어야 올 것 같은데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작년에 자전거 많이 탔어요
그런데 타는건 많이 했는데
수리는 안해봤었죠
첫 시간에는 제가 같이갔었는데
분해 하는데 관심 많고
두 번째는 참가 못했어요

050-
일단 배우려고 하니깐
관심많죠
걔를 집중적으로 가르키면, 아무래도 큰아이니깐
큰 아이를 가르치면 밑에 애들이 자동으로 되니깐
학교끝나면 가방 두고 와요.
걔가 가르켜주고 그런거 좋아해요
열심히해요

051-
저희가 어디 자전거 캠프 같은데 가면
애들한테 소속감을 좀
이걸 통해서
소속감도 생기고
어차피 바느질 시간에 이런 안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나왔어요

소감요
하하하하

*날개달린 자전걸 ... 아이들의 소속감뿐만아니라
노숙인 아저씨들에겐 큰 힘을 주는 것 같다.

055-
바라지도 않아
세월이 갔는데 머

인문학 한것으로도 만족해
어떻게 뭐 안해요
아니 일을 시킨다던가

056-
* 막혀 있는 하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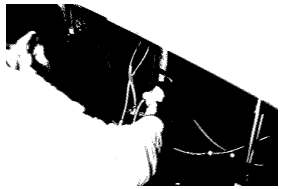
막혔으면 뚫어야지
이게 어디서 막힌거야

057-
* 아저씨의 손길에 과연...

커피마시고해

058-

이게 흘러나올껄
뭐 받을거 하나 있으면되
조그만한거 하나 있으면 되지



059-

060-

이게 없잖아 이게
뚜껑이 없구나 고장났지
세수는 못하는구나 물은 고이고
깨끗이해

062-

* 뻥 뚫려버린 막힌 하수구

066-

* 오늘 이 분이 없었더라면...

* 길거리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들
  우리가 봐오던 노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노숙인들의 이미지도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자전거 수리, 하수구 수리하는 모습을 보면
  다 똑같은 ... 사람이다.
  이들도 몇 년전에는
  집에서 자녀에게 자전거를 고쳐주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001-
나 안 망가 트렸는데.
스티커도 띠어놓고
자전거 싹 수리해줄게

002-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되나.
무료봉사하고
꼭 내가 필요한것 같아
돈만 많이 주면 확실히 봉사하는데
아니지
봉사비는 받아야지
이 불경기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003-
좋은곳이네
나 이번달에 백만원 나오는데 살수 있을까
카메라
나도 자전거나 타고다니면서 사진찍고 싶은데

004-
이촉감이있자나
쪼이는 맛
두장을딱 봤을 때
캬
이 상쾌한
그렇지 쇼킹이 될 수도 있고
수법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방 부르스가 되는거지
거의 안놓치고 보죠
놓치면 안되지 예술적인거

006-

007-
그런데 이거 삐뚤어 진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거 왜 삐뚤어졌죠
너 그거입고 교복 안버리겠냐

008-

009-

여기를 좀 보면 여기를 잘라주고요
요거를 요거를 분해할거야
요거 실 집는거
요거하고 그럴거거든
실 한번 풀러봐
분해 할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먼저 풀러야 겠지
기아 브레이크
이쪽
이렇게 다음

010-
그렇지. 요거 풀렀지. 그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여기를 풀러줘야해
천천히
자. 그렇지 그렇지 어느정도 풀러졌으면은
요게 다되었으면
다 풀러졌지
그러면 빼주고
빼주고 다음에 빼주고
한번에 다 안되니깐은 천천히 이제
요거 됐고 요거 됐고 다음에 뒤집어 바퀴

011-

012-
우리 학생들 다 안 왔지
학생들이 와야 이걸 닦아가지고
시킬건데
요거 일단 분해를 해서 싹 닦아

013-
아니 여기 관심있는 아이들 오면
수업

014-

015-
저는 할 줄 아는게 없는데요
그냥 해요

016-
너무 하면 기스나 버리거든
이게 수업시간에 했어요.
아크릴 물감으로 한 건데
이게 마르기 전에 비가와버린거에요
그래서 다 배껴져 버렸어
한은미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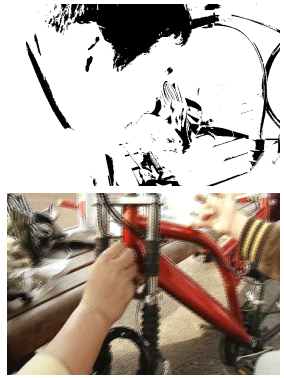
017-

018-
이게 휠 잡는거거든
이게 자전거 휠 잡아주는 기계야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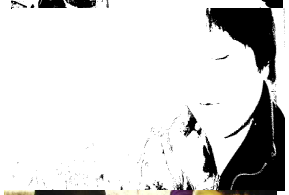
* 아이들에게 자전거 수리기술을
알려주며 환하게 웃는 노숙인.
과연 우리가 지하철 역을 지나며
봐오던 노숙인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가 봐오던 노숙인은... 무섭다.

020-
*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다.



021-

022-
심각해요.



023-
일단 하나만끼는거야 한 부분만
이렇게 한 부분만 끼는거야
한부분만
두개 끼려고 하려면
우리도 못껴, 남자도 못껴
한 부분만껴
나머지껴봐
너 지금 그리고 봐봐
잘못꼈다.
내가 그랬잖아
툭 튀언나 온부분을 손으로 잡고
그다음에

구멍뚫린 곳을 살짝 올리면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 노숙인과 공부방 아이들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없어 보인다.
  그냥 함께 어울릴 뿐이다.

024-
자전거 이렇거 타면
굴러떨어져
또 날라가고 싶어? 사람위로?
잠깐만
튜브가 나왔잖아
이 고무튜브가 나왔잖아
튜브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거야
고무가 튜브가 빵빵하게 나와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줄알아?
사람살에 맞으면 사람 살이 뜯어져
구멍 보이지? 이렇게 잡고 싹 돌려줘
그러면은 이쪽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안들어가잖아
세워줘. 이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벌려가지고
집어 넌 다음에 고무를 만져주면서
만져주는거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같이 눌러주는거야.

025-
* 노숙인 아저씨들의 기술 전수로
  전문가가 되어가는 학생들.

026-
좋겠다.
벌써 스카우트 제의 받은 거네.

고 1인데.
저건 나도 못해.
그냥 여기서 배우라 그래서.
재밌어요.

027-
그래서 여기 젊은 친구를 영입을해서 가르켜줘야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도 다 마스터 못해요
일단

028-
이렇게 세워
한쪽으로 해서 끼어
손 집어넣어서
다들어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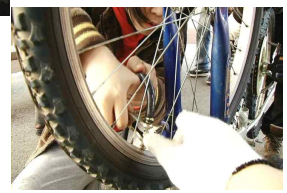
029-
이렇게 해가지고
밀리잖아
양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다보면은
여기 이제
나사하나 꽂고

031-
야 요기까지 내리는꺼야

* 여기에 있는 노숙인들은
  노숙인이 아니였다.
  그냥 옆집 오빠 같은 느낌.

032-

033-
과연될까.
이렇게 해야지.
밑으로.
요거를 딱 잡고,
그렇지.
자전거 올라와있으니깐
이따가 누면안될까.
자전거 세워두고.



036-
음. 관심있어하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구요.
여름에 자기들이 전국라이딩을 할거니깐.
캠프식으로.
이전에는 작년에는 자기들끼리 자전거만 탔는데
자기들이 수리배워가지고
라이딩할 때, 고장나고 그러면 고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보고,
보는 것 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거 고장날 때 친구가 고쳐줄 때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선주 - 자원봉사자

037-
이게 따르릉 소리가 나야해.
다음에 올 때 하나 가져다 줄게.
이건 저기거야.

038-

큰일났네.
이름이 모라고 그랬지?
윤성국요.
성국이가 빨리 배워야겠다.
열심히해야해.
마스터해가지고 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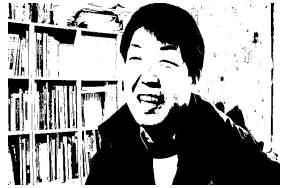
039-
저번에 전국일주.
촛불시위 때문에 전국일주 하고.

040-
많아야 애들이 많아야 재미있는데
가리치는 머도 있는데
안나오니깐
늦게끝나고 안나오다보니깐
성국이를 빨리 가르쳐야지

041-
금방금방 기술을.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전국일주)

042-
할말도 없고.
네.
즐거웠습니다.
평생이것만 하고 살고 싶어
여기 눌러앉으면 안될까.
써주지 않을까.

* 노숙인라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게 아닌
노숙인들이 공부방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일주를 하게 될 날개달린 자전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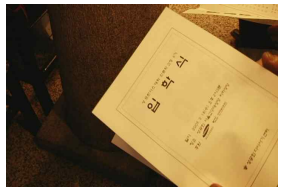
045-
다른게있다?
그 자전거도 하는 것도
일단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거잖아.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니깐
5월 달에 하이킹도가고 바자회 같은 것도 뭐 한다하더라고
자기가 만든 자전거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행사 참여한다고 하니깐
나중에 봤을 때 가르쳐 줄 때 쓸 때가 있을거아니야.
자원봉사 필리핀 갔을 때.
그전에는 그때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요기 들어와서 다녀온 이후로 거기에 조금 매력을 느꼈지
혼자는 안 되지. 봉사는 혼자안되는거잖아. 여럿이 하다보면,
이런게 봉사로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해야지
진짜 혼자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봉사하려고 해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하면 작은 힘이라 해도,
그래서 다음에 기회있으면 또 할려고
이런 것도 봉사라하면 봉사잖아요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누가 도와 달라하면 도와줘여지

046-
수고 많으셨습니다.

047-
김영희 - 모락산 아이들
예.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좀 자연스러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입견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몹시 걱정은 좀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보니깐 특히 아이들도 저희도 반가웠고
아이들도 협응해서 잘하니깐 지금은 참. 편하고 좋아요

*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거나 나쁜 이미지로 각인된다.
더구나 지하철역에서 더러운 옷차림과 주위에 널 부러져 있는 술병,
술에 취 잠들어 있는 노숙인의 모습만을 보아왔던
우리는 노숙인을 무능력함, 무섭다 등으로...
노숙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노숙인분들과 만나면
그동안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분의 삶의 일대기도 들을 수 있다.
단지 몇 번 만의 만남으로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조금씩,..바뀌어 가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다.

46. # 20090318



002

014
앞으로 인연이 많이 되었으면 기대감이 큽니다.
살면서 기회가 되게 많이 왔었다는 걸 느끼는데,
지금까지 많이 흘려보낸걸 느낍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고,
어떻게 살아 가야 하나
여태까지 무기력하게 생각도 많이 했고
생각을 하면서 희망이라고 가진 것을
망상이었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년 과정 지나면서
망상이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가졌으면 합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세계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 선생님 교수님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꿈을 꾸어서 세상이 제껏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015-
권일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이 좀 그런데,

우리 사기는 사학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학우들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겪어본 자만이 가지는 진실한 환영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성프란시스코대학은
아무나 입학되는 것이 아니라
반이상 죽어본 인간만이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원조대학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체험학습을 죽도록 해봐야
세상 갈때까지 가봐야 하는

최고의 대학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규대학은 잘먹고 잘 살기 위한
우리 성프란시스대학은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깨우치는 인문학입니다.
꼭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 징크스를 깨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이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습관을
깨어버리십시오

재무문제, 별거문제, 위장결혼...

이거 하면서
솔직하게 다 풀어놓자
이때 못 풀면 영원히 남아서

학우들간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공부 못해요
서로
장구, 북치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친구들
나중에 가면은
그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고
지금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내가 너무 고독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총장님, 교수님, 모교 동창, 모교 후배들..
원이 사각모자쓰는 것이었는데,
야.. 나에게도 교수님이 생겼구나
교수가 아무나 가지는 것입니까?

지하철에서 그래요..
교수님이. .
큰 소리로 자기가 교수님을 가지고 있다고
대학생이라고 알리고 싶다고

전 너무 좋습니다.
엠티도 가보고, 졸업여행도 가보고
사각모자도 쓰고 사진찍고

동창생 모임..
짜증나기 시작했는데,
동창생, ,후배..
그 스트레스가 싹 빠졌어요

트라우마..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인문학을 하고 나서
내가생각해도 기가 막혀

새내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희망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년이 되길 바라며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인문학 원조입니다.
잘 해야 합니다.

성공해 80년..
정규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체험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맨 처음에
햄릿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것도 인간이 읽는 책이냐?
전략을 짰어요
맨처음 두장, 가운데 두장, 마지막 두장..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야
교수님이 뽑아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과서..
다 생각하고 책 진짜 감사하게

내가 다섯권을 들고
책을 절대로 안 버린다.
창고에 갖다 놓고
어쯜때는 보따리 싸서 책을 이고 다녔어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거기서 이게 뭔가를 알게되고
..감사합니다.

029- 교가..

042-

학생이 된 느낌이
그래도 이제 거의 30년만에
다시 또 시작하려니까 어차피
좀 설레이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이왕 발을 내딛었으니
열심히 해야죠 또 다른 세계로 한번 접어 들어 봐야죠
좋은 선생님들하고
내가 이 나이 먹을 동안 어떻게 대학교 선생님들 만나겠어
좋은 기회니까
마칠때까지 열심히 해봐야지.
또 다른 세계가 보일지 알아요

043-

어제 떨어진 친구가 센터에서
멍하니
혼자 창문을 바라 보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일년동안 열심히
제가 잘 되면 그 다음 부터는 제가 이차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겁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저도 기뻐요 열심히 해 봅시다.

몇 번 떨어졌지?
두 번

044-
풍물동아리
쿵따쿵따
일년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그렇게 하려고
이름도 하나 깽판이든 뭐든
5기는 방학때부터
4기 선배들이 잘
나 잡혀가지고
지난번에 안 한 선생님도
민수하고 얘기 했어요
진짜 마음에 있으면
그건 내가 이야기 한 번
기금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옷은 맞춰야 이게
그거 말고.
사물놀이 민복 서울역에서 한 판 놀아야죠
서울역 광장에서
한 번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사라진 대동제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에요
이정도 한다 우리도 ..
우리도 이정도한다.
우리 그거 잘 하면
줄도 한 번 탈까요

그것도 하시면
탈춤 배웠으니까 탈춤도 한 번
학교 종이 땡땡친다.
찔르르으 찌르릉릉 비켜놔소..
약 죽이는 거지
우리 인자.
힘들어
조르바!
악수하며.. 면도도 잘 하고 이쁜데,

045-
다음주 수요일부터 저녁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두시간 씩
아주 멋진 다시서기 풍물패
김덕수가 울고 갈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몇 년훈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닮은 저기
유럽의 집시들하고 홈리스 같은 집시들하고
멋진 공연을.

아이디어는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이죠

같이 합류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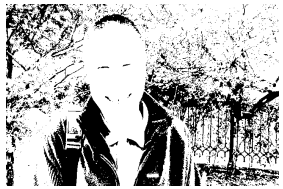
046-
몽고의 생활과 문화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한 분이 해주시고,
아랍의 사회와 문화
그담에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

047-
이건 진짜 어딜가서도 들을 수 없는
책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과 이야기 하면..

인도 문명..
지난번에 ebs 기획한 사람.
중국.
완전히 지구촌 여행을 다 다니는 거
세계가 다 내..
과거로도.. 이천년전 그리스도 갔다가
이거 시간이 너무 짧겠다.
계속 테마 바꿔 가며
올해 이십강,
아까 그 분도 특강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분 강좌도 한 번 넣을까..
연예계도 한 번..

048-
저는 지금 성공회대 학생이고요 4학년 휴학중 최은정입니다.
우리 4기중에 그 분 아세요?
그 분이 우리 성프란시스 대학의 성공한 분입니다.
여기 와서 결혼했어요
잘 해 보세요

049-
진짜 이런 거랑 안 친해요
생리가
이런 기쁨.
바람에 넘어가는 것도 세워주고
아까도 옆에서 들었겠지만,
뭐라할까
이거는 어디가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고
간접경험이지만, 그런 지식을 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교수가 와서 해주시는데
어디가서 이런 복을 받아봅니까
이게 인문학의 기쁨
내 생각도 넓고, 깊고 높아질 수 있고
이거보다 얻는게 너무 고맙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릴정도로 고맙습니다.



요즘은 ?
저..
요새는 진자 책을 읽는 재미를 붙였어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거나
우울하거나..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엔 술도 많이 먹고

윤원주..님

050-
공부할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걸요
특강 프로그램을 다른 교수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만히 들어보니
지구..
몇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통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서울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공부를 무척 많이한 분들이
다른 거
수요일은.. 가슴에 있는거 뱉어 내고
목요일은 집어 넣고

언제부터 하기로 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나도 가고 싶어

051-
개념을 잡을 정도
이번학기 교재.. 그거 쉬워요 내가 번역한 거
이선근 선생님.
발표했기 때문에 주는 거에요
이거 키울때 물을 많이 안 줘도 된대요
가벼울때 물을 주래요
바이올렛 햇빛 많이 드는 대다 둬요

054-
배우신게 있다?
한 두 개가 아니죠
졸업문집, 소식지..
북어와 가재미라고.. 뭘 배웠는지..

055-
우리 집사람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떨렸죠
정말..
그 제가 올해로 대학강단 20년짼데,

첫 강단 섰을때가 약관 30살에 가정학과 여학생들이었는데,
그때도 안 떨었는데,
노숙인 선생님들 처음 뵀을 때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떨렸다는게..
긴장했다기 보다
뭐라고 말은 하긴 힘들지만,
마치 선남선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 이었어요..
그만해요